음악

중학교

5



교육도서출판사
주체101(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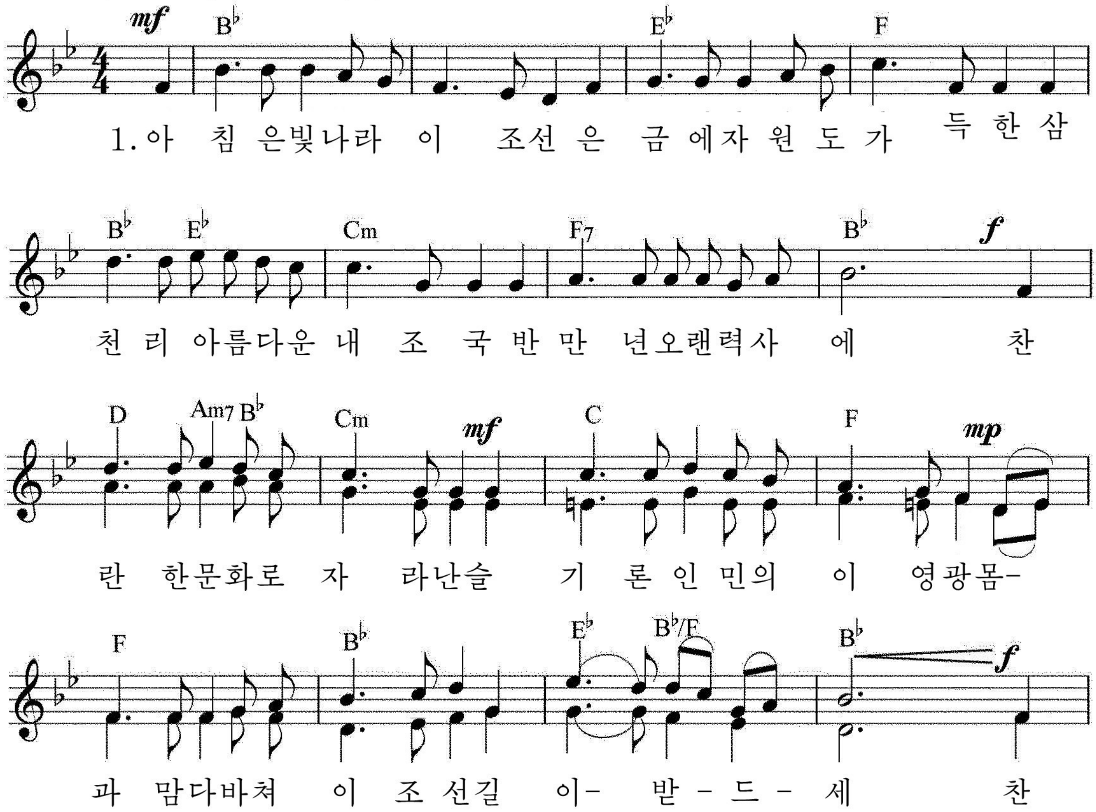
차 례

제1과. 애 국 가

작사 박세영

약간 느리고 장엄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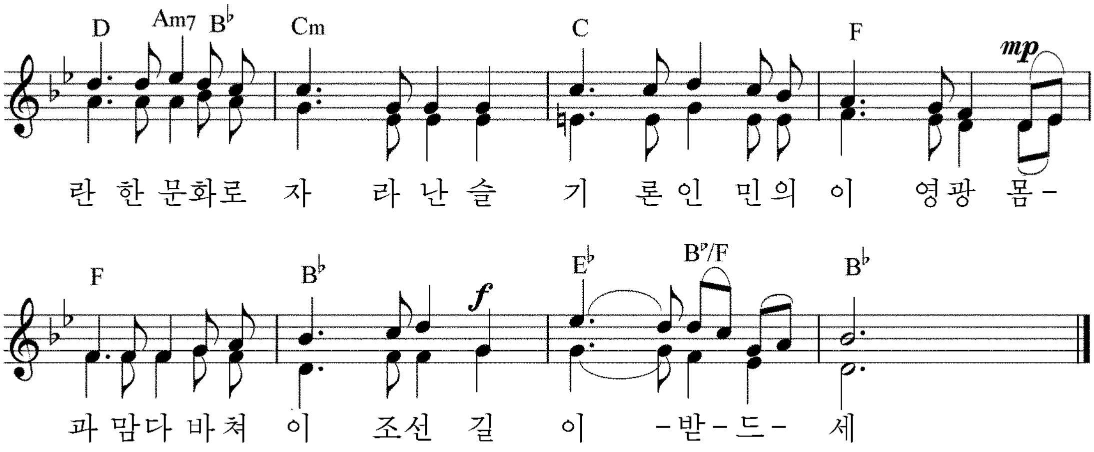
작곡 김원균



국 가

국가란 한 나라의 기상이나 영예를 상징하여 부르도록 국가적으로 정한 노래를 말한다. 국가는 의식 및 국가적인 행사때에 기악으로 주악되거나 대중들이 합창으로 부르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국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여주신 《애국가》이다.

《애국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세워주신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정과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우리 인민들의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다.



2. 백두산기상을 다 안고 근로의 정신은 깃들어
진리로 뭉쳐 진 억센 뜻 온세계 앞서 나가리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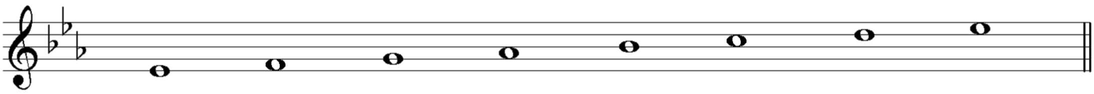
김 원 균 (1917-2002)

김원균은 오랜 기간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애국가》, 《조선청년행진곡》등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심금을 울리는 명곡들을 창작하였으며 《피바다》식가극창조에 공헌한 이름있는 음악가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그는 평양음악무용대학(당시)학장, 피바다가극단 총장 겸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국제음악리사회 명예위원으로 사업하였으며 **김일성**상계관인으로, 인민예술가로 되였다.

제2과.　미♭— 대조시창(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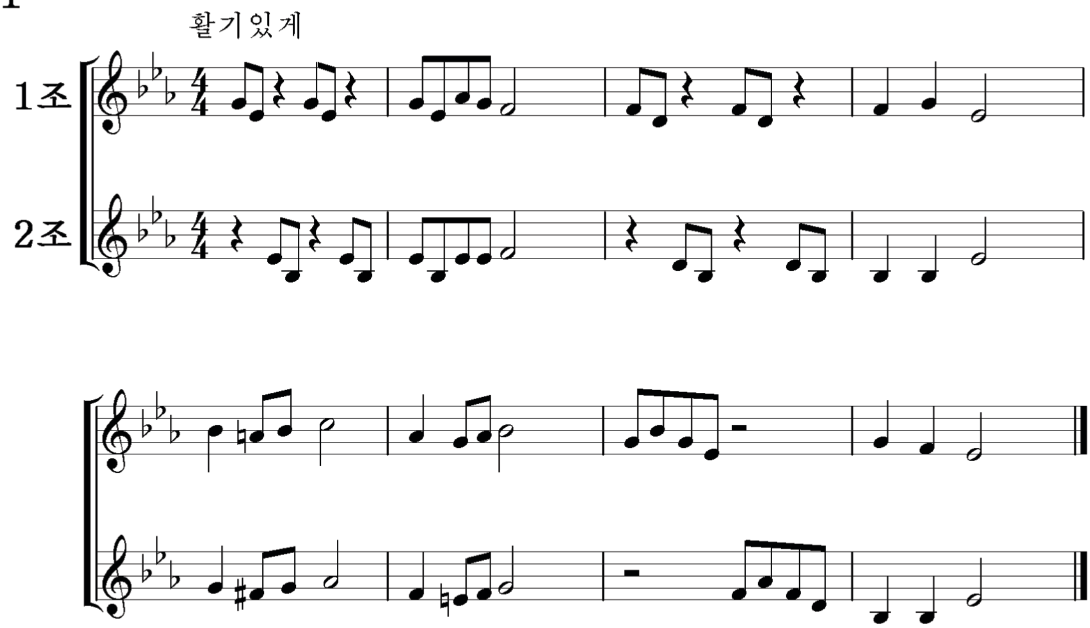
미 ♭—대조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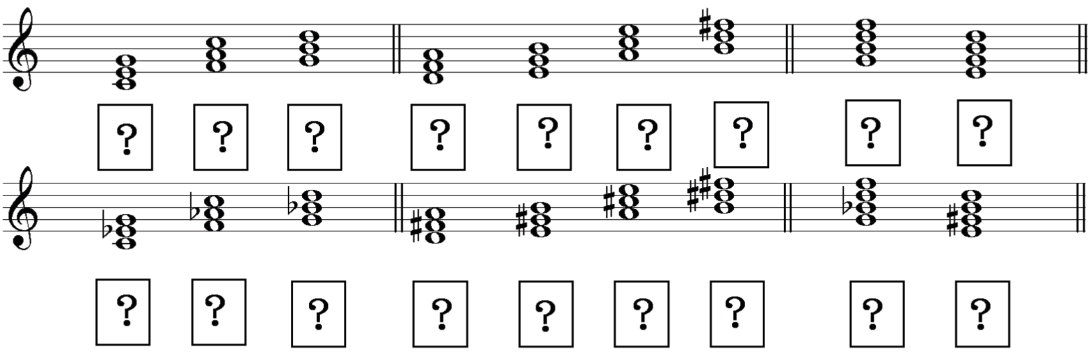
도　레　미　화　쏠　라　씨　도

I　II　III　IV　V　VI　VII　I

1



아래에 제시한 화음을 화음기호로 표기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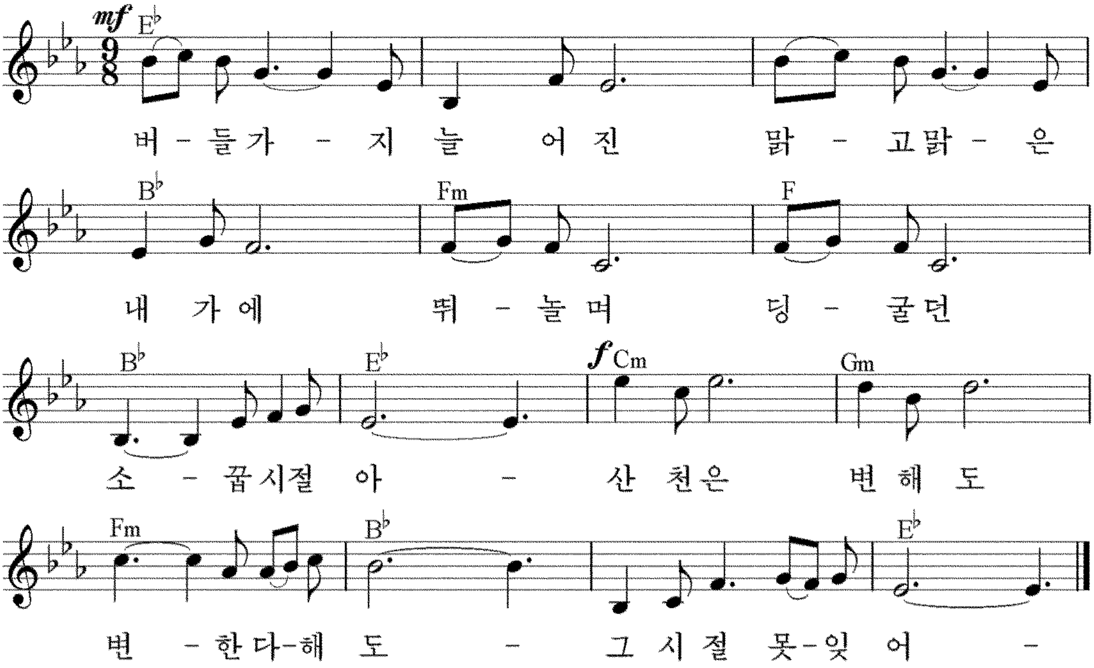


그 사랑 못 잊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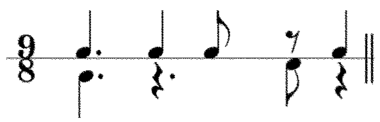
작사 리하규
작곡 김명희

느리지 않고 정답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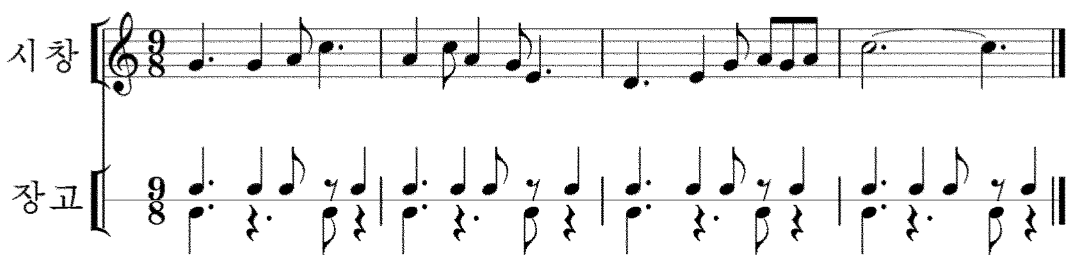


양산도장단

양산도장단은 $\frac{9}{8}$박자 한소절을 단위로 하여 한장단을 이룬다.



양산도장단은 흥겹고 락천적이면서도 률동성이 강한 장단이다.

양산도장단련습



선 률

선률이란 한 성부에서 울리면서 일정한 음악의 사상정서적내용을 표현하는 음들의 조직적인 결합을 말한다. 선률은 인간의 사상감정의 충동에 따라 스스로 흘러나오는 정서의 표현이다. 사람은 사상과 감정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생활하는 과정에 자기가 느낀 사상감정을 표현하려는 충동을 받게 된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감정을 선률에 담아 표현한다.

사람이 기쁜 일이 생겼거나 마음이 유쾌할 때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는것은 선률이 인간의 사상감정의 충동에 의한 정서의 표현이라는것을 잘 말해준다.

선률은 일정한 높이와 길이를 가진 여러 음들이 고유한 음조직체계와 음악문법에 따라 한 성부에서 시간적으로 련속되면서 음악적의도를 표현한다. 선률은 음의 높낮이와 조식, 리듬, 박자, 력도, 음색, 속도 등과 같은 음악적언어형상의 여러가지 표현요소들의 조화로운 통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선률만으로써도 음악의 사상정서적내용을 자립적으로 표현할수 있다.

1부분형식(악절)

음악에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이루어진 여러가지 구조형식이 있다.

모든 음악작품은 자기의 구체적인 구조형식을 가지고 존재한다.

1부분형식은 하나의 부분으로 구성되여있으면서 완결된 하나의 음악형상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작은 음악작품구조형식이다.

1부분형식을 글과 비유해보면 완결된 하나의 문장과 같다고 말할수 있다. 1부분형식은 하나의 악절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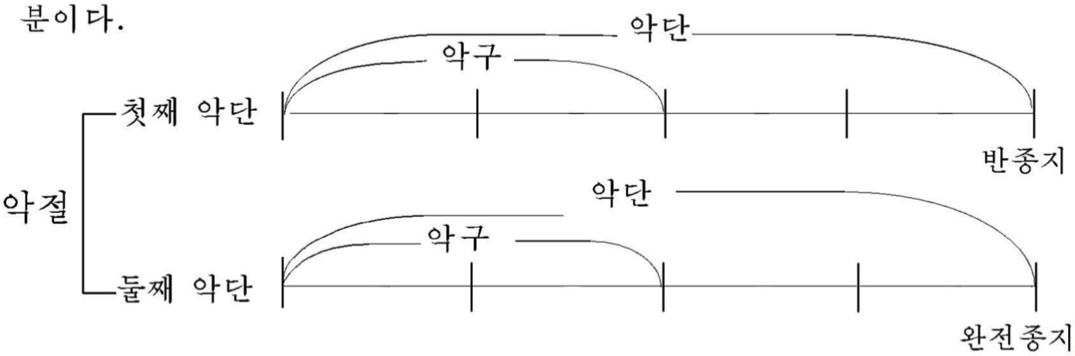
악절이란 하나의 완결된 음악적의도를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의 음악구조를 말한다.

악절은 완결된 음악구조로 되는 동시에 보다 큰 규모의 음악작품을 이루는데서 중요한 음악구조의 하나로 된다.

악절은 흔히 8소절로 이루어지며 악단, 악구, 동기로 구분된다.

악단은 악절에서 구분되는 하나의 큰 부분이며 선률발전진행에서 중간단락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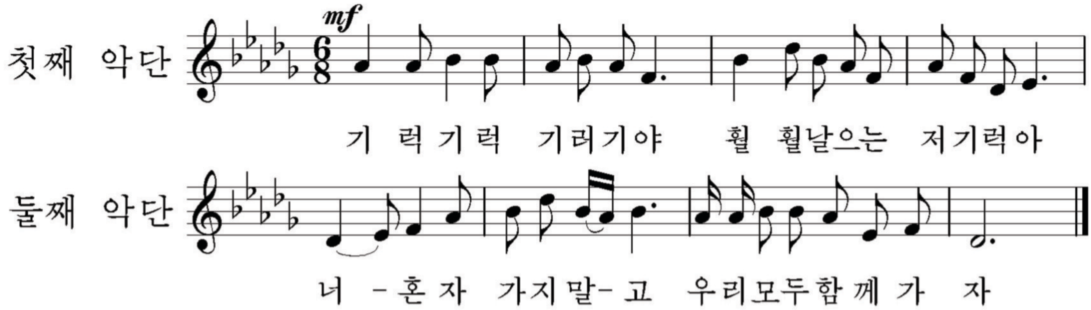
하나의 악절은 보통 두개의 악단으로 이루어지며 놓여진 순서에 따라 첫째 악단, 둘째 악단으로 부른다. 매개 악단은 보통 두개의 악구로 이루어진다. 악구는 악단에서 선률적단락들에 의하여 구분되는 하나의 부분이다.



동기는 음악적으로 일정한 형상적의도를 가지는 선률의 가장 작은 부분이다. 동기는 선률의 주제적내용을 제시하는 표현적요소로서 작품의 첫시작에 놓이며 그 크기는 소절의 한 부분이나 한개 또는 두개 소절로 될수 있다. 악절이 독립적인 음악작품형식으로 될 때 그것은 곧 1부분형식으로 된다. 례를 들면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중에서 혁명가극 《피바다》에 나오는 노래 《기럭기럭 기러기야》는 1부분형식으로 된 작품이다.

기럭기럭 기러기야

조용히 느리게



1부분형식은 음악형상의 발전적성격 즉 둘째 악단이 첫째 악단의 음악소재들을 반복하는가 반복하지 않는가에 따라 반복하는 1부분형식(정적1부분형식)과 반복하지 않는 1부분형식(동적1부분형식)으로 구분된다.

제3과. 경음악 《기쁨싣고 달리는 말발구》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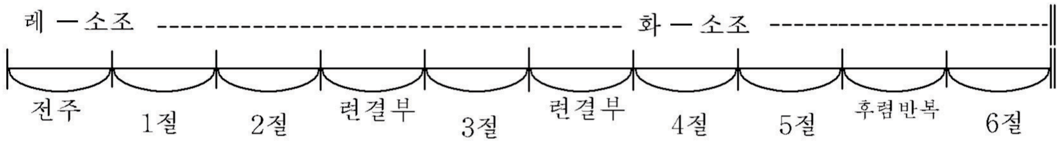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음악은 그에 맞는 노래를 선택하는것과 함께 경음악의 특성을 살려 재미나고 가볍게 편곡하여야 한다.》

경음악 《기쁨싣고 달리는 말발구》는 예술영화 《조선의 별》 제3부에서 나오는 장면음악을 경음악의 특성에 맞게 형상한 작품이다.

작품은 혁명전사들을 동지로 믿어주시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고매한 풍모와 수령님께 자신의 운명도 미래도 영원히 맡기고 따르려는 혁명전사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서정깊이 노래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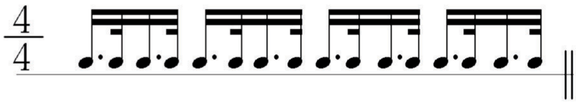
작품은 선률을 모두 여섯번에 걸쳐 반복하며 여기에 전주와 두개의 련결부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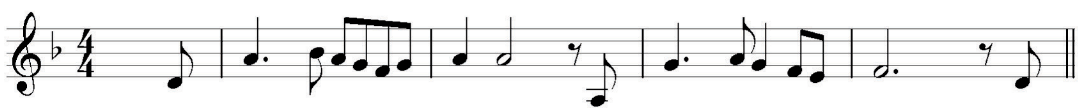


경음악은 아득히 먼곳에서 말갈기를 날리며 달려오는 말발구를 형상하는 전주로부터 시작된다. 달리는 말발구를 형상한 리듬은 다음과 같다.

선률리듬

방울, 목탁리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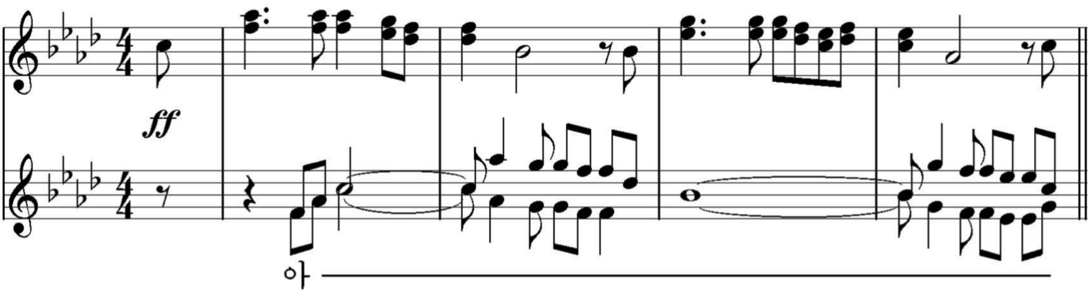


전주에 이어 기본선률이 제시된다.



작품의 첫째 절과 둘째 절에서는 기타의 선률로부터 시작하여 목관악기 그리고 바이올린, 비올라 등의 악기들이 선률을 교체하여 연주하면서 환희와 기쁨에 넘쳐 달리는 말발구의 화폭을 정서적으로 펼쳐보인다.

련결부에서는 방창을 배합하여 경음악의 정서적흐름을 더욱 앙양시킴으로써 아버지대원수님을 높이 모신 혁명전사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층 돋구어주고있다.

작품은 셋째 절에서 주인공들의 랑만적인 정신세계를 목관악기와 트럼페트의 선률로 깊이있게 형상한 다음 두번째 련결부로 넘어가면서 더 절절하고 격동적으로 울려주고있다. 작품은 넷째 절에서 새로운 조성(화－소조)으로 넘어가면서 음악적감정을 더 고조시킨 다음 다섯째 절에서 최고절정을 이루고있다. 여기서 음악은 혁명의 길이 아무리 간고하여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계시는 한 조선혁명의 미래는 언제나 찬란하며 락관적이라는 신념으로 차넘친 청년혁명가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정,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을 정서깊이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여섯째 절에서 깊은 여운을 남기며 아득히 멀어져가는 말발구를 련상시키면서 끝난다.

경음악 《기쁨싣고 달리는 말발구》는 기쁨도 있고 웃음도 있으며 수령님과 전사들사이의 혈연적인 우정이 넘치는 영화장면을 경쾌하고 랑만적인 정서로 감명깊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경 음 악

경음악이란 비교적 적은 연주가들에 의하여 연주되는 경쾌한 음악을 말한다. 경음악의 악기구성은 일정하지 않으나 보통 플류트, 클라리네트, 쌕스폰, 트럼페트, 트롬본, 손풍금, 바이올린, 콘트라바스, 기타, 타악기 등으로 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적음악예술사상과 방침에 따라 명곡과 민요를 소재로 하고 선률을 위주로 하는 우리 식의 경음악작품들이 창조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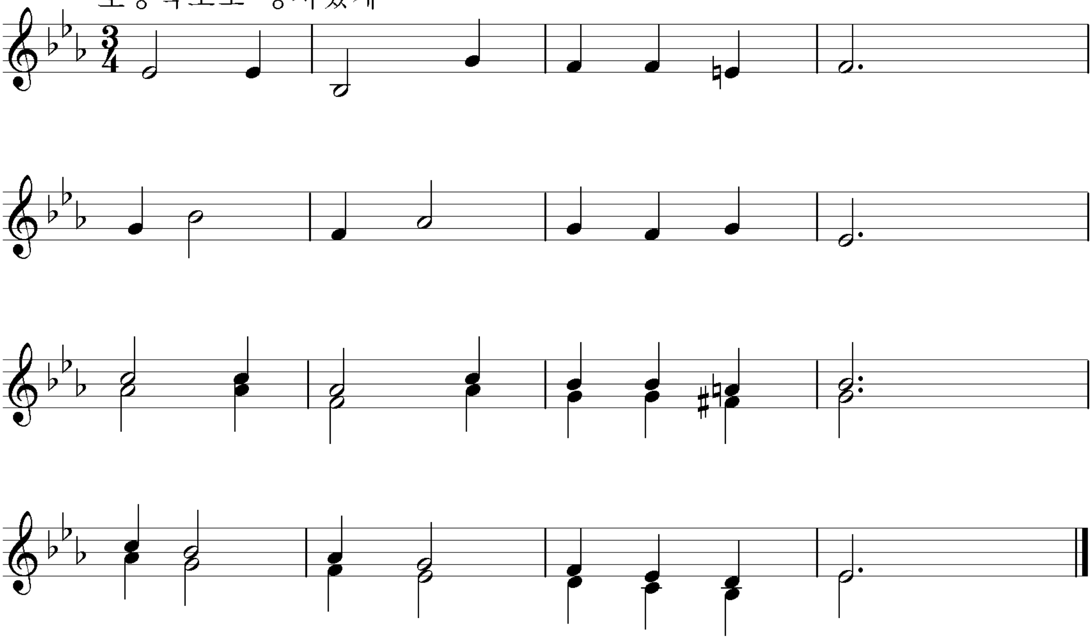
전 조

전조란 악곡의 진행도중에 곡의 조성이 다른 조성으로 바뀌는것을 말한다. 전조는 본래의 조성에서 다른 조성으로 바뀌기때문에 많은 경우 새로운 변음기호가 붙게 된다. 전조는 같은 조식(대조에서 대조 또는 소조에서 소조)에서 조성만 바꿀수도 있고 조성은 물론 조식도 바꿀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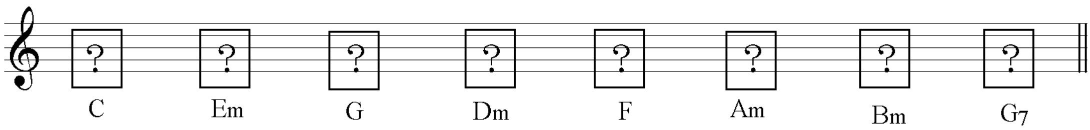
제4과. 미♭— 대조시창(3, 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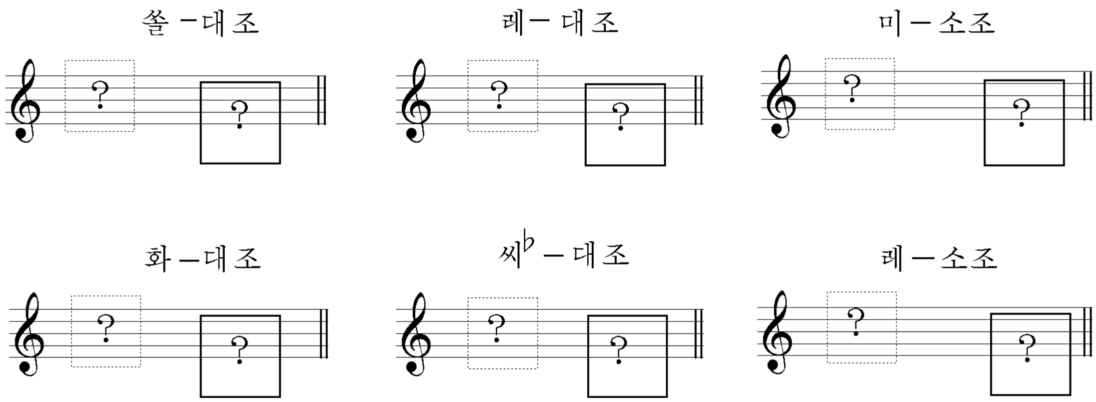
보통속도로 정서있게



아래에 제시한 화음기호에 해당한 화음을 5선에 적으시오.



아래에 제시한 조식조성의 이름을 보고 그에 해당한 조기호와 주음을 5선에 적으시오.



압 록 강 의 노 래

4

좀 천천히 경건한 마음으로

1= 미♭

mp

6/8 5 6 6 6 | 1 6 5. | 6 5 6 1 | 2. 2. |

1.일 천구백 십 구년 삼 월일일 은 -

1 2 3 3 | 5 3 2 1 1 | 2 3 6 6 | 5. 5. |

이 내몸이 압 록-강을 건 넌날일 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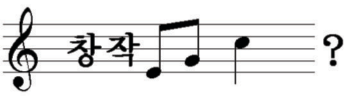
5 6 6 6 | 1 6 5. | 6 5 6 1 | 2. 2. |

년 -년이 이 날은 돌 아오리 니 -

mf

3 5 5 6 | 5 3 2 1 1 2 | 5 6 5 3 2 | 1. 1. ‖

내 목적을 이 루-고서야 돌 아가-리 라 -



1부분형식의 선률창작(1)

1부분형식의 선률은 그의 구조적특성에 맞게 창작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선률에 하나의 음악형상이 놓이게 하는것이다.

그러자면 첫 시작선률(동기)의 음조적투와 리듬적인 통일이 선률발전 전 과정에 이루어지게 하면서 선률의 오르내림을 유순하게 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사의 구절과 선률의 마디를 맞추어야 하며 선률을 결속짓는 음은 가장 안정한 음(주음)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가사 **보고싶은 아버지장군님**

자나깨나 보고싶은 아버지장군님
해빛밝은 우리 집에 함께 계셔요

2부분형식

2부분형식이란 두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여있으면서 하나의 음악주제적내용을 제시하고 발전완결시켜주는 음악작품구조형식을 말한다.

2부분형식은 두개의 악절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1부분형식에 비하여 하나의 음악주제적내용을 보다 충분히 구현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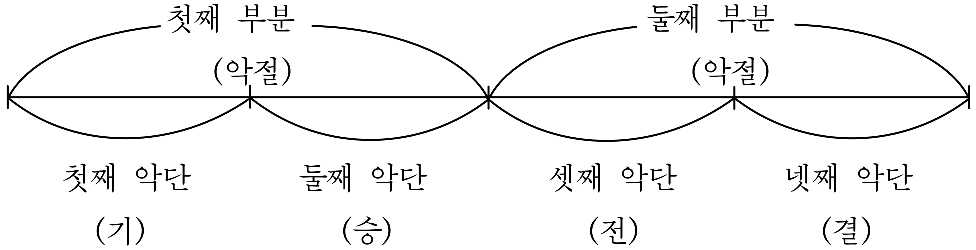
2부분형식에서 첫째 악절을 첫째 부분이라고 하며 둘째 악절을 둘째 부분이라고 한다.

2부분형식의 매개 부분들은 다같이 악절이면서도 그의 음악발전성격에서는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2부분형식의 첫째 악절은 음악주제적내용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며 둘째 악절은 첫째 악절에서 제시된 음악주제적내용을 발전시키고 완결시켜주는 부분이다.

2부분형식의 매개 부분들의 기능적특성을 종합하여보면 첫째 악단은 주제적내용을 제시하며 둘째 악단은 첫째 악단의 주제적내용을 공고화 또는 계승시키며 셋째 악단은 첫째 악절의 내용을 발전시키고 넷째 악단은 주제적내용을 완결시켜준다.

이와 같이 악절구성의 일반적론리에 기초하여 주제를 제시하고 공고화 및 계승시키며 그것을 발전시키고 완결하는것을 기승전결의 원칙이라고 한다.



2부분형식은 성악작품들에서 가장 많이 리용되고있는 음악작품구조형식이다.

2부분형식은 그것을 구성하고있는 매개 부분들의 음악발전성격과 규모에 따라 크게 단순2부분형식과 복합2부분형식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 단순2부분형식

단순2부분형식은 매개 부분을 구성하고있는 두개 악절의 음악발전성격에 따라 반복하는 단순2부분형식과 반복하지 않는 단순2부분형식으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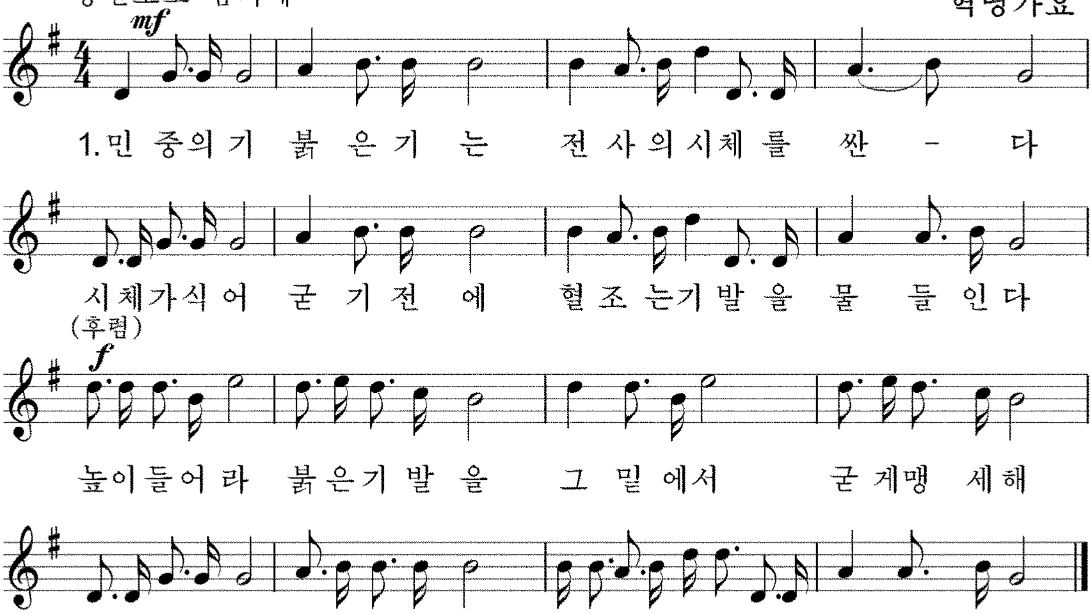
－반복하는 단순2부분형식(정적2부분형식)

반복하는 단순2부분형식은 그것을 구성하고있는 두개의 부분들사이에 반복성이 있는 음악작품구조형식이다. 다시말하여 반복하는 단순2부분형식은 둘째 악절이 첫째 악절의 어느 한 악단을 반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음악작품구조형식이다.

실례로 혁명가요 《적기가》를 들수 있다.

적 기 가

행진조로 힘차게 혁명가요



혁명가요 《적기가》에서는 첫째 악절의 첫째, 둘째 악단에 제시된 음악소재가 둘째 악절의 마지막악단에서 반복되고있다.

반복하는 단순2부분형식에서 둘째 부분의 마지막악단은 주로 첫째 부분의 둘째 악단이 반복되는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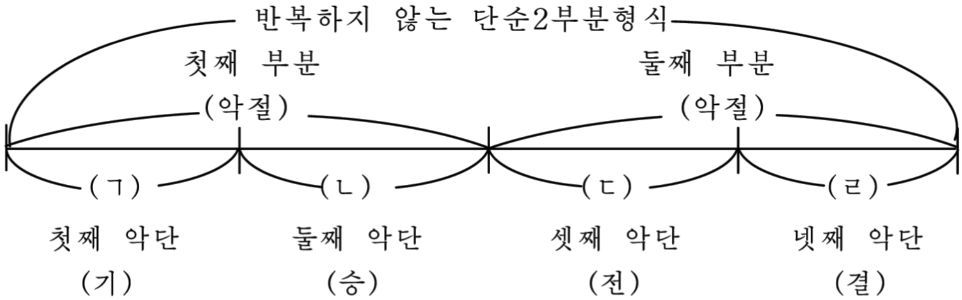
— 반복하지 않는 단순2부분형식(동적2부분형식)

반복하지 않는 단순2부분형식은 그것을 구성하고있는 두개의 부분들사이에 반복성이 없는 음악작품구조형식이다. 다시 말하여 반복하지 않는 단순2부분형식은 둘째 악절이 첫째 악절의 어느 한 부분을 반복하는것이 아니라 서로 대조되는 두개의 악절로 구성되는 음악작품구조형식이다.

실례로 가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를 들수 있다.(제16과에 있는 가요를 참고할것.)

가요《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에서는 첫째 악단을 둘째 악단에서 반복함이 없이 계속 발전시켜 도—소조의 주음으로 끝나면서 첫째 부분을 이루고있으며 둘째 부분에서도 첫째 부분의 어느 한 악단도 반복함이 없이 계속 발전시켜 도—소조의 완전종지로 끝맺고있다.

반복하지 않는 단순2부분형식을 도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복합2부분형식

복합2부분형식은 크게 두개의 부분으로 구성되며 그의 매개 부분들이 각각 단순2부분형식으로 구성되거나 두개의 부분들중 한 부분은 단순2부분형식으로 구성되고 다른 한 부분은 악절로 구성되는 음악작품구조형식이다.

우리의 음악작품들에서는 단순2부분형식에 악절이 첨가되여 구성되는 복합2부분형식이 많이 리용된다.

실례로 가요 《우러러 따르는 김정숙어머님》, 《승리의 5월》등을 들수 있다.

제5과.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

정서깊이 희망차고 절절하게

1=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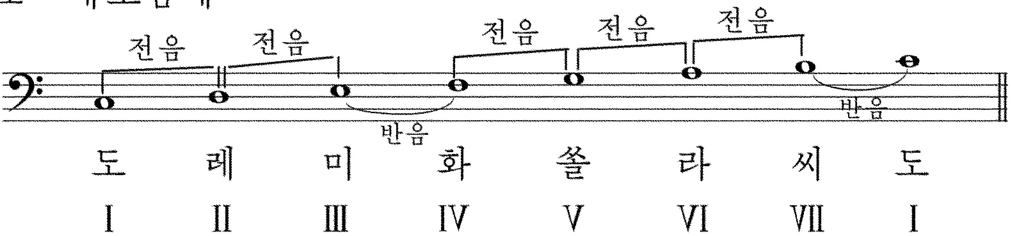


2.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리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
아 조선아 너를 떨치리

3.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
대를 이어 해빛으로 이어가리라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공산주의 그날을 앞당겨오리
아 조선아 나의 조선아

제6과. 저음기호시창(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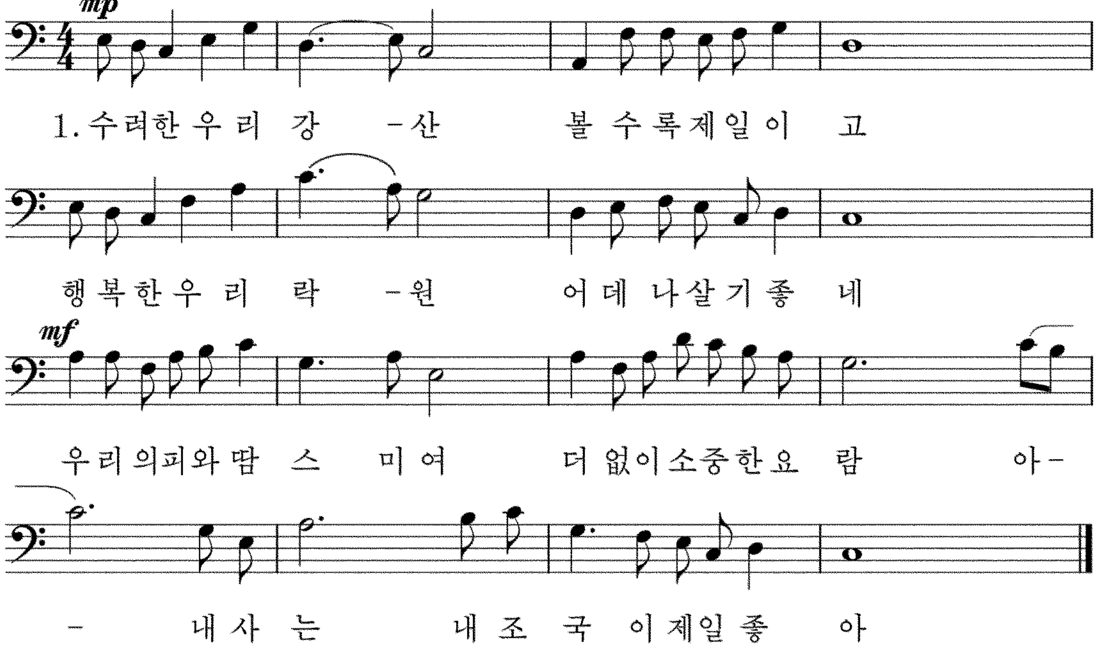
도— 대조음계



5 내 조국이 제일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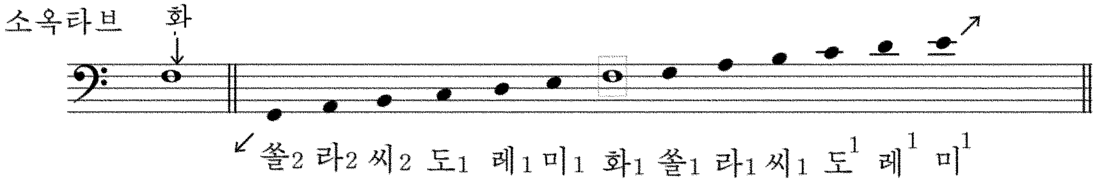
작사 김정훈
작곡 도영섭

보통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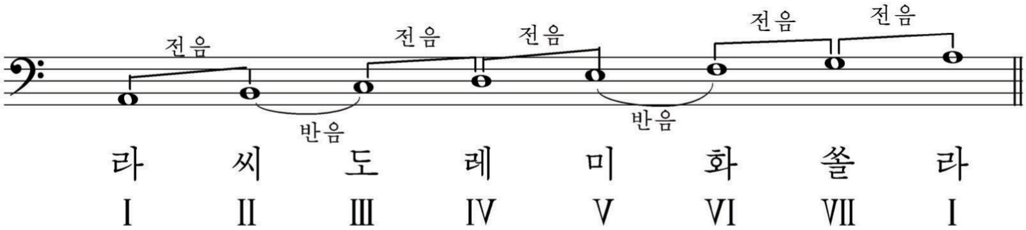
저음기호

저음기호는 5선의 제4선에 놓인 음을 소옥타브 화음으로 규정하는 음고기호이다.



저음기호는 남성저음성부와 대보표를 쓰는 건반악기(피아노, 손풍금, 풍금)를 비롯하여 저음을 내는 악기들(저해금, 콘트라바스, 트롬본, 바스 등)을 위한 악보들에서 많이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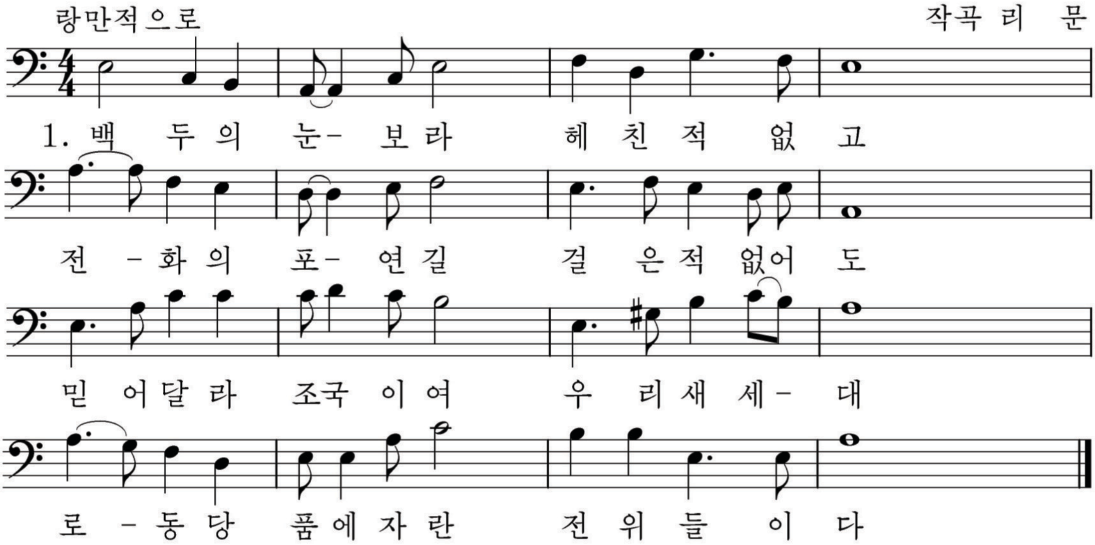
라 -소조음계



6

믿어달라 조국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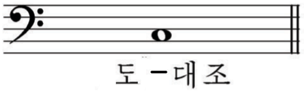
작사 강립석
작곡 리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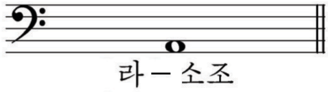


저음기호의 악보보기

저음기호의 악보는 고음기호의 악보와 달리 5선에서 주음이 놓이는 위치와 조기호가 놓이는 위치가 다르기때문에 이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져야 시창 또는 악기연주를 정확히 할수 있다. 우선 대조식과 소조식에서 주음이 놓이는 위치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

례를 들면 도음을 주음으로 하는 대조식에서는 5선의 제2간에 놓이는 음이 도음이며 그로부터 음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라음을 주음으로 하는 소조식에서는 5선의 제1간에 놓이는 음이 라음이며 그로부터 음계가 이루어진다.


도 -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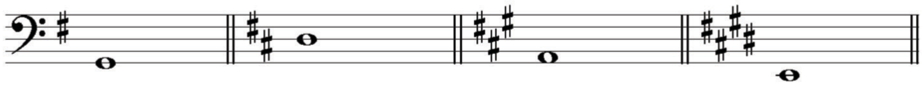

라 - 소조

저음기호의 악보보기에서는 대조식과 소조식의 주음이 놓이는 위치와 그에 기초하여 5선의 매개 선과 간에 놓이는 음이 무슨 음인가 하는것을 정확히 인식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조기호를 가진 대조식과 소조식에서 조기호가 놓이는 위치와 그에 따르는 주음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는것과 함께 5선의 매개 선과 간에 놓이는 음이 해당한 조식조성에서 무슨 음인가 하는것을 바로 인식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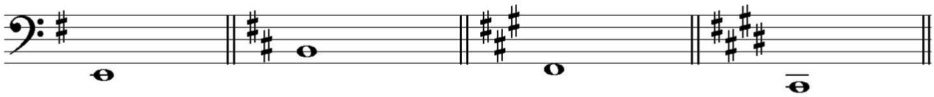
올림기호(♯)의 조기호와 주음이 놓이는 위치

대조



쏠-대조 레-대조 라-대조 미-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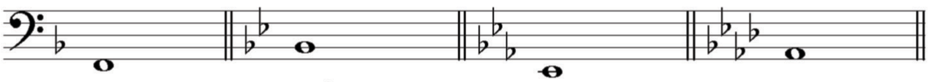
소조



미-소조 씨-소조 화♯-소조 도♯-소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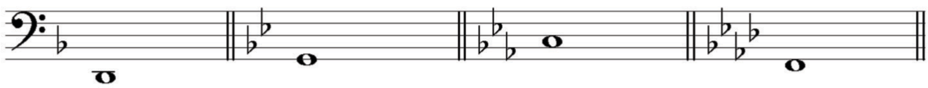
내림기호(♭)의 조기호와 주음이 놓이는 위치

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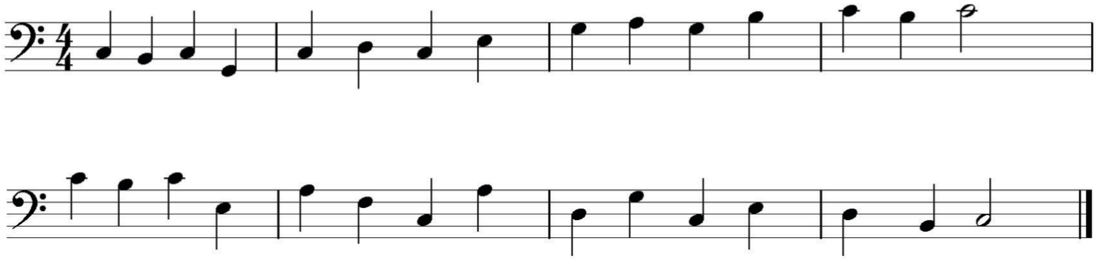
화-대조 씨♭-대조 미♭-대조 라♭-대조

소조



레-소조 쏠-소조 도-소조 화-소조

음정련습



제7과. 교향곡 《피바다》 감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향곡 <피바다>를 비롯한 일련의 교향곡과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아리랑>을 비롯한 많은 관현악곡 그리고 피아노협주곡 <조선은 하나다>, 바이올린협주곡 <사향가>와 같은것은 다 우리 나라 명곡에 기초하여 만든 것으로서 사상예술성이 높으면서도 누구나 쉽게 리해할수 있는 우수한 교향악작품들이다.》

교향곡《피바다》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중에서 혁명가극《피바다》에 나오는 주제가와 기둥노래를 음악주제로 하고 우리 식으로 편곡한 가장 큰 규모의 교향악작품의 하나이다.

작품은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며 피압박인민들은 손에 무장을 잡고 일어나 싸워야 자신을 해방할수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세개의 악장으로 된 이 작품은 1악장《피바다》, 2악장《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3악장《혁명의 기치》로 되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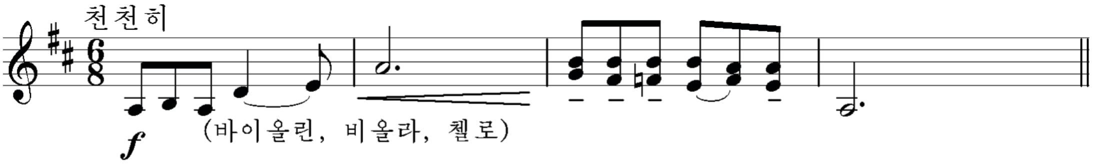
제1악장《피바다》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가》**와 혁명가요《<토벌>가》에 의하여 씌여졌다.

제1악장《피바다》는 강도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우리 인민의 피눈물나는 생활과 피바다속에 잠긴 조국, 원쑤 일제의 귀축같은 만행에 대한 분노와 울분을 깊고도 폭넓은 관현악울림으로 형상하고있다.

서주부는 금관악기군의 불협화음과 목관악기군, 현악기군의 총 연주로써 피바다에 잠긴 당시의 엄혹한 현실을 생동하게 표현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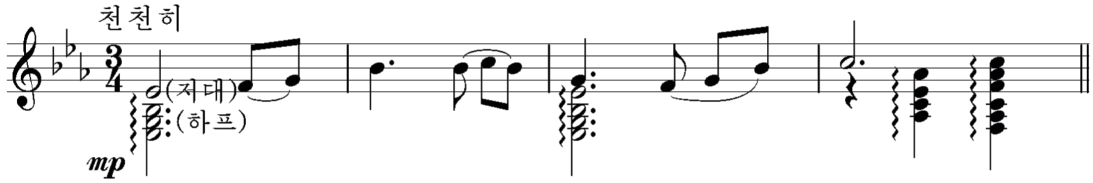
서주부에 이어 제1악장 첫 부분(제시부)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가》**의 선률을 현악기군과 목관악기군, 관현악 등으로 여러번 반복하고 발전시키면서 원한의 피바다장면과 강도 일제의 귀축같은 만행을 온 천하에 고발하듯 총 연주로 비장하게 울린다.

첫 부분(제시부)



제1악장의 둘째 부분(중간부)은 혁명가요 《<토벌>가》의 처량하면서도 애절한 선률이 반복되고 발전하면서 피바다에 잠긴 조국의 운명과 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을 표현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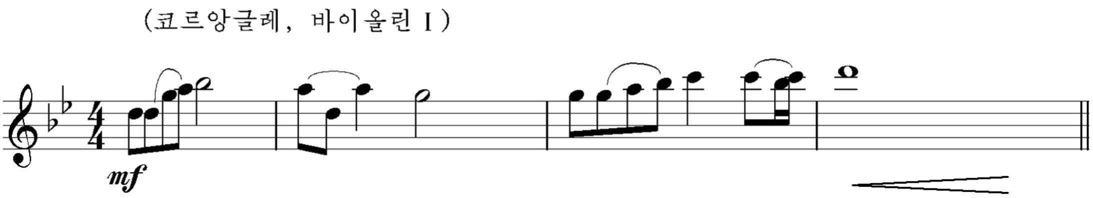
둘째 부분(중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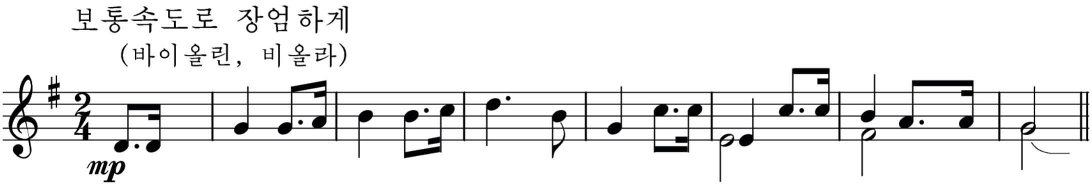


타악기의 강력한 울림에 이어 1악장의 셋째 부분(반복부)에서는 다시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가》**가 쓸쓸하게 울리면서 피바다에 잠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탄하며 안타까이 모대기는 당시 우리 인민의 심정을 그대로 형상하고있다.

교향곡의 제2악장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중에서 혁명가극 《피바다》에 나오는 노래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를 주제로 하여 씌여졌다.

목관악기의 짧은 서주에 이어 목관악기군과 현악기군이 서로 바뀌면서 노래를 여러번 반복하고있는 제2악장은 혁명의 길에 떨쳐나서는 주인공일가의 성격발전과정을 생동하게 표현하고있다.



교향곡의 제3악장 《혁명의 기치》는 혁명가요 《혁명가》와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가》**에 의하여 씌여졌다.



3악장은 혁명가요 《혁명가》의 음조에 기초한 박력있고 무게있는 서주부에 이어 원곡의 힘찬 선률로써 원쑤의 아성을 향하여 용감하게 돌진하는 항일혁명투사들의 모습을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그리고 서글픈 감정이 아니라 기백있게 울리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가》**를 통하여 수난의 피바다를 투쟁의 피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작품의 종자를 힘있게 강조해주고있다.

계속하여 음악은 빠르면서도 폭넓은 울림으로 연주되는 종결부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시는 항일혁명성전에 파감히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교 향 곡

교향곡이란 독자적인 여러개의 악곡들로 련결곡형식을 이루면서 하나의 주제사상을 표현하는 큰 규모의 기악음악작품을 말한다.
교향곡은 일정한 극적줄거리를 가지고 독자적이면서도 내적으로 통일된 여러 악장을 관통하면서 형상이 극적으로 심오하게 전개되는것이 특징이다.

보통 3~4개의 악장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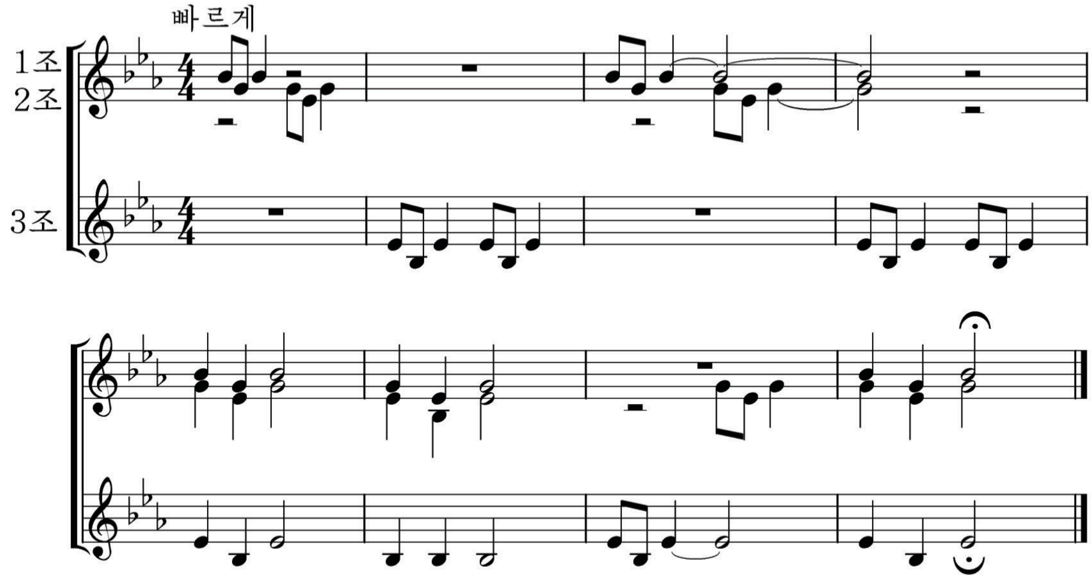
총 보

총보란 관현악, 중주, 합창, 중창 등 다성음악작품들에서 여러 성부들의 악보를 한눈에 볼수 있게 기록한 총괄적인 악보를 말한다. 총보는 악기의 종류별 또는 성음별로 기록되는바 일반적으로 관현악총보는 목관악기군, 금관악기군, 타악기군, 건반 및 발현악기군, 현악기군 등의 순서로 기록하며 합창총보는 녀성고음, 녀성저음, 남성고음, 남성저음 등의 순서로 기록한다.

제8과.　　미♭— 대조시창(7, 8)

7

［3성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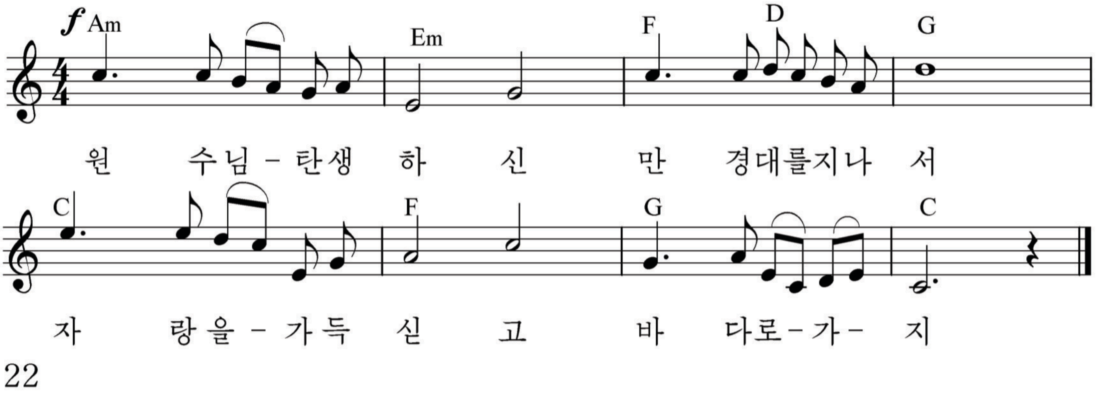




2성부만들기

노래를 고음과 저음으로 나누어 2성부로 부르면 울림이 충실하고 듣기에도 좋다. 2성부만들기에서 저음성부는 주로 기본선률아래에 3도와 6도의 음정적차이로 놓이게 하면서 저음성부의 선률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1도, 4도, 5도, 8도의 완전협화음정을 적절히 배합하여야 하며 2도와 7도의 불협화음정은 약간씩 배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성부는 주로 노래의 앞부분보다 뒤부분(후렴)에서 적용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아래에 제시한 가요의 뒤부분선률을 2성부로 만들어보시오.

《노래하자 대동강》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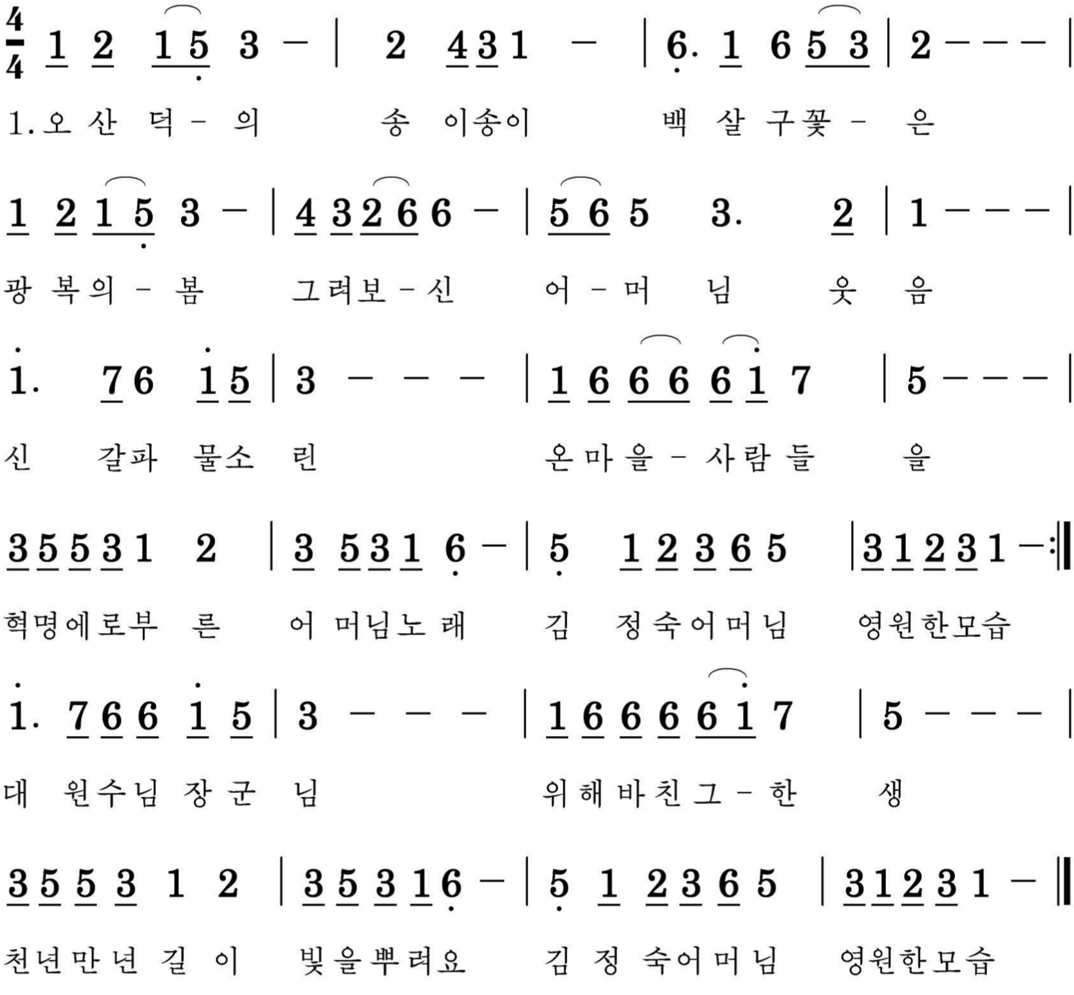


김정숙어머님의 영원한 모습

8

정서적으로 뜨겁게
1=미♭

작사 김승길
작곡 함기찬



1부분형식의 선률창작(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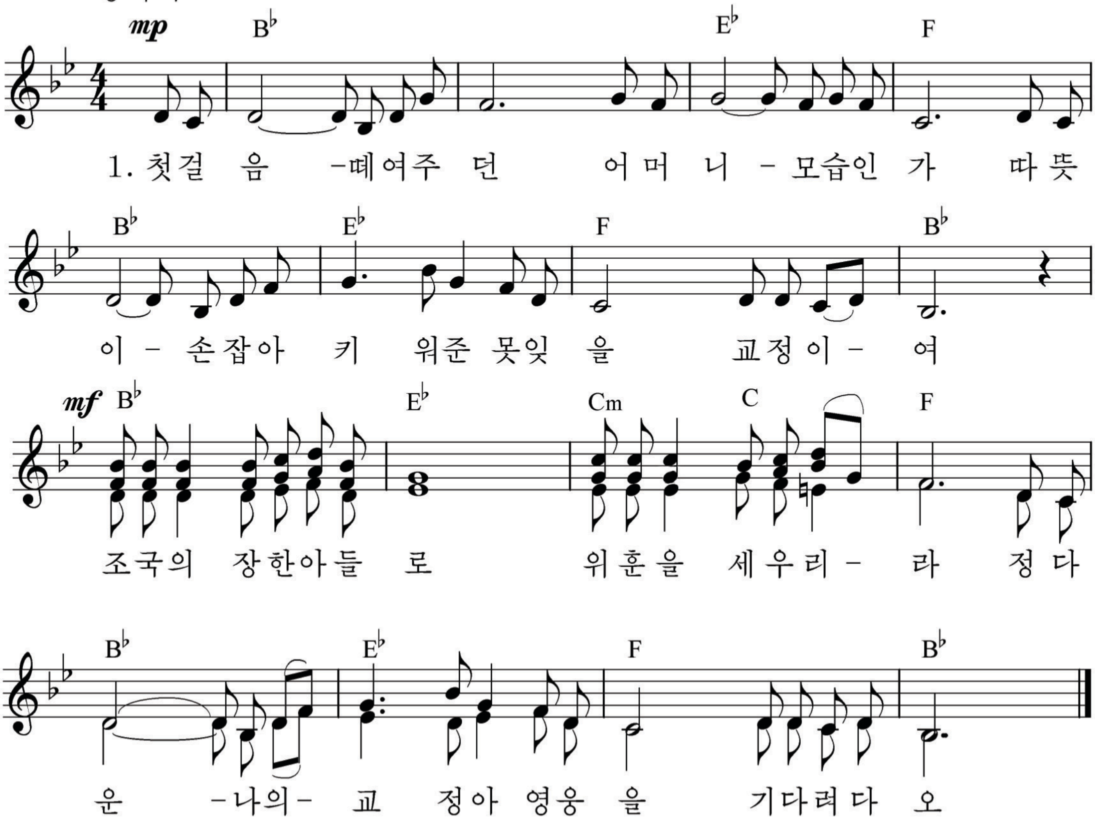
가사　어깨동무 우리 동무 학교에 가요

동산에 아침해님 방긋 웃으면
어깨동무 우리 동무 학교에 가요

제9과. 정든 교정아 영웅을 기다려다오

정서적으로

작사, 작곡 한순용



2. 행복이 넘쳐나는 배움의 창가에서
   영웅들 그 모습 그리며 우리모두 자랐지
   조국의 장한 아들로 용맹을 떨치리라
   정다운 나의 교정아 영웅을 기다려다오

3. 제자의 그 이름을 잊지를 말아다오
   내 앉아 공부하던 그 자리도 남겨다오
   조국의 장한 아들로 금별을 빛내리라
   정다운 나의 교정아 영웅을 기다려다오

제10과. 관현악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감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향악분야에서도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민족적이면서 인민적이고 현대적인 교향악작품을 많이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관현악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는 시대정신이 맥박치고 민족적정서가 짙은 명곡으로 널리 알려진 1960년대 작품 관현악과 합창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를 기본소재로 하여 만든 대표적인 관현악작품이다.

관현악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는 양악관현악에 민족악기 장새납과 꽹과리를 배합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의 해발아래 풍년가을을 맞이한 협동농장원들의 기쁨과 행복을 흥취가 나게 노래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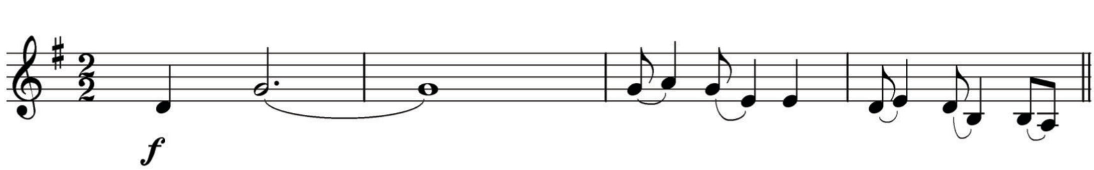
작품은 서주와 종곡을 가진 3부분형식으로 구성되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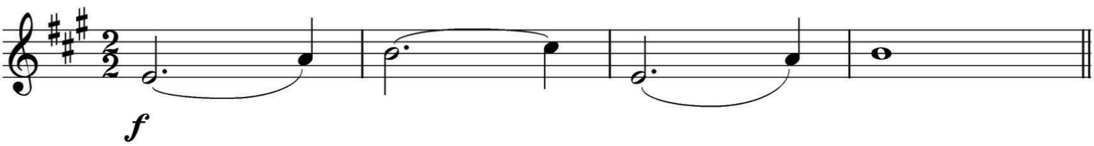
서주는 금나락 설레이는 청산벌의 전경과 풍년가을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의 기세찬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준다.

작품의 서주에서 특징적인것은 서정적으로 느리게 흐르는 형상과 약동적으로 빠르게 흐르는 형상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서주에 이어 관현악은 첫째 부분(제시부)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리용된 선률소재는 작품의 원곡과 민요 《풍년가》이다.

원곡은 주주제로 되며 민요는 부주제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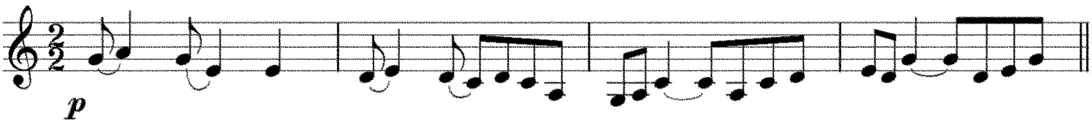


음악에서 말하는 주제는 문학적인 주제와는 달리 음악에 리용되는 선률로서 언제나 작품전반에 관통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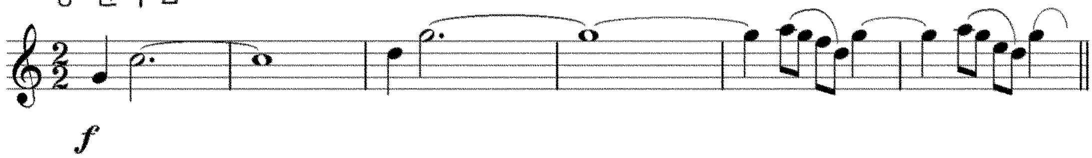
음악주제는 대체로 하나로 선정되지만 관현악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에서는 두개의 주제가 제시됨으로써 구조형식을 특색있게 하고 작품의 주제사상을 더욱 뚜렷이 살리고있다.

둘째 부분(중간부)에서는 첫 부분과 형상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새로운 형상세계를 펼쳐보여준다.

중간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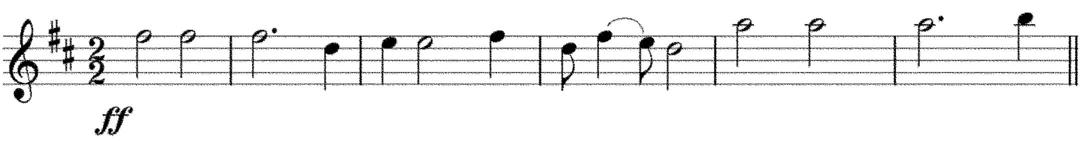
중간부2



네소절의 선률소재를 모방의 방법으로 여러차례 반복한데 이어 장새납독주로 연주하는 두번째 중간부는 제시부와 대조를 이루면서 흥겨운 분배장을 련상케해준다.

셋째 부분(반복부)에서는 제시부에서와는 달리 《풍년가》로부터 시작하여 흐뭇하게 안겨질 분배를 생각하며 또다시 벼가을을 걸싸게 해나가는 농업근로자들의 보람찬 로동을 생동하게 펼쳐보여주고있다.

반복부에 이어 종결부가 장엄하게 울려퍼진다.



주주제선률과 함께 금관악기의 강한 울림으로 전개되는 종결부에서는 풍년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정을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김옥성(1916-1965)

인민예술가이며 인민상계관인인 김옥성은 우리 나라의 이름난 작곡가의 한사람이다. 그는 해방후 가요 《녀성의 노래》, 교성곡 《압록강》을 창작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결전의 길로》,《전호속의 나의 노래》를 비롯한 수많은 전시가요들을 창작하여 우리 인민의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전후에는 관현악과 합창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가요 《만경대의 노래》, 아동가요 《아름다운 만경대》, 《우리 집 토끼》 등 여러가지 형식의 음악작품들을 창작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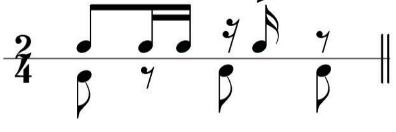
배합관현악

배합관현악이란 민족악기를 위주로 하고 거기에 양악기를 적절히 배합한 주체적관현악을 말한다.

배합관현악에는 민족악기에 양악기를 전면적으로 배합한 전면배합관현악과 양악관현악에 민족목관악기를 배합한 부분배합관현악이 있다.

휘모리장단

휘모리장단은 $\frac{2}{4}$박자 한소절을 단위로 하여 한장단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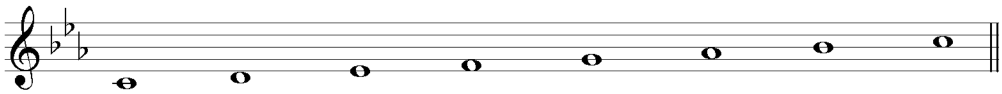


휘모리장단은 음악선률의 특성에 따라 $\frac{4}{4}$, $\frac{2}{2}$박자로 기보하는 경우도 있다.

휘모리장단은 기백이 있고 경쾌하며 약동적인 장단이다.

제11과.   도—소조시창(9, 10)

도 —소조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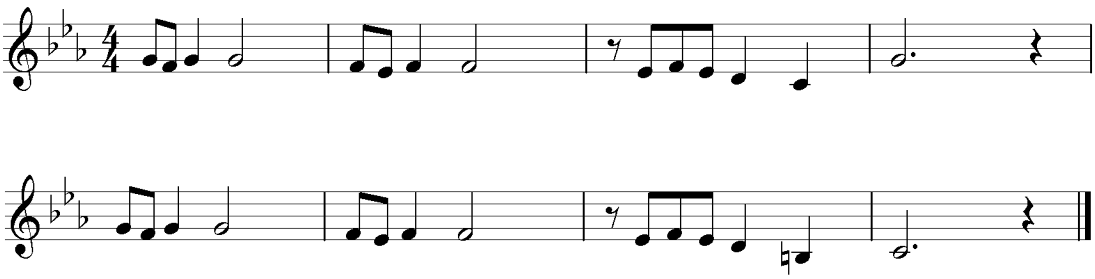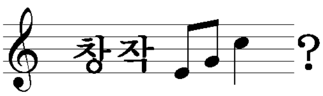


라 씨 도 레 미 화 쏠 라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Ⅰ

9

약간 느리게 서정적으로





단순2부분형식의 선률창작(1)

선률은 자기의 고유한 문법과 발전법칙에 맞게 전개되여야 자연스럽게 흐를수 있으며 유순하고 아름다운 선률로 될수 있다.

단순2부분형식은 선률발전단계 즉 음악주제적내용의 제시, 공고화 및 계승, 발전, 결속의 단계를 가장 명확히 갖춘 음악작품구조형식이라고 말할수 있다.

단순2부분형식의 선률창작에서 첫째 악단은 음악주제적내용을 제시하는 단계, 둘째 악단은 처음에 제시된 주제적내용을 공고화 및 계승하는 단계, 셋째 악단은 선률의 적극적인 발전단계, 넷째 악단은 음악형상의 종결단계로 되게 하여야 한다.

가사　　　　살기 좋은 우리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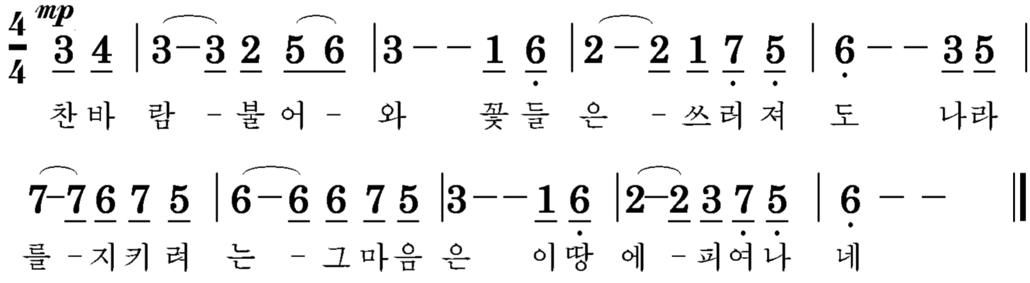
살기 좋은 우리 마을 화목한 가정
장군님의 품속에서 꽃피는 마을
서로서로 도우면서 이끄는 마음
웃음소리 하늘높이 넘쳐납니다

이 땅을 지켜가리

10

절절하게 　　　　　　　　　　　　　　　　작사 김용권

1=미♭ 　　　　　　　　　　　　　　　　　작곡 김명희



평행조, 동명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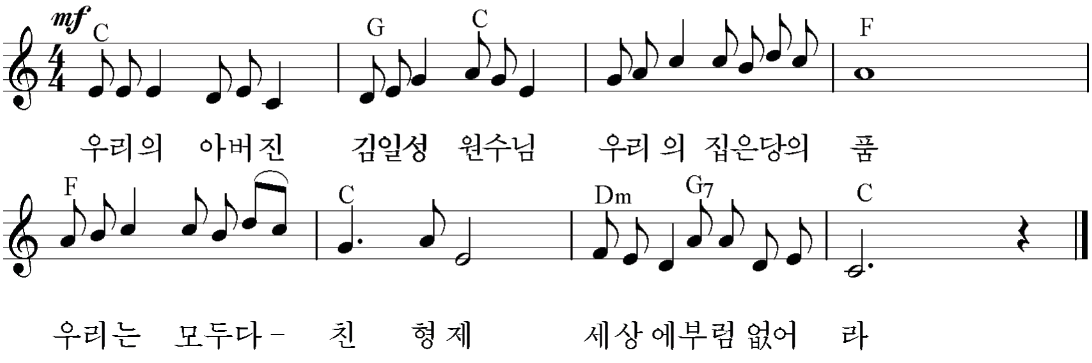
평행조란 같은 조기호를 가진 대조와 소조를 말한다. 평행조에서 대조와 소조의 주음들은 항상 소3도 관계로 놓이게 된다.

례를 들면 도-대조와 라-소조, 쏠-대조와 미-소조, 화-대조와 레-소조, 미♭-대조와 도-소조 등은 평행조관계에 있다. 동명조란 조기호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지만 주음이 같은 대조와 소조를 말한다. 례를 들면 도-대조와 도-소조, 레-대조와 레-소조, 쏠-대조와 쏠-소조 등은 동명조관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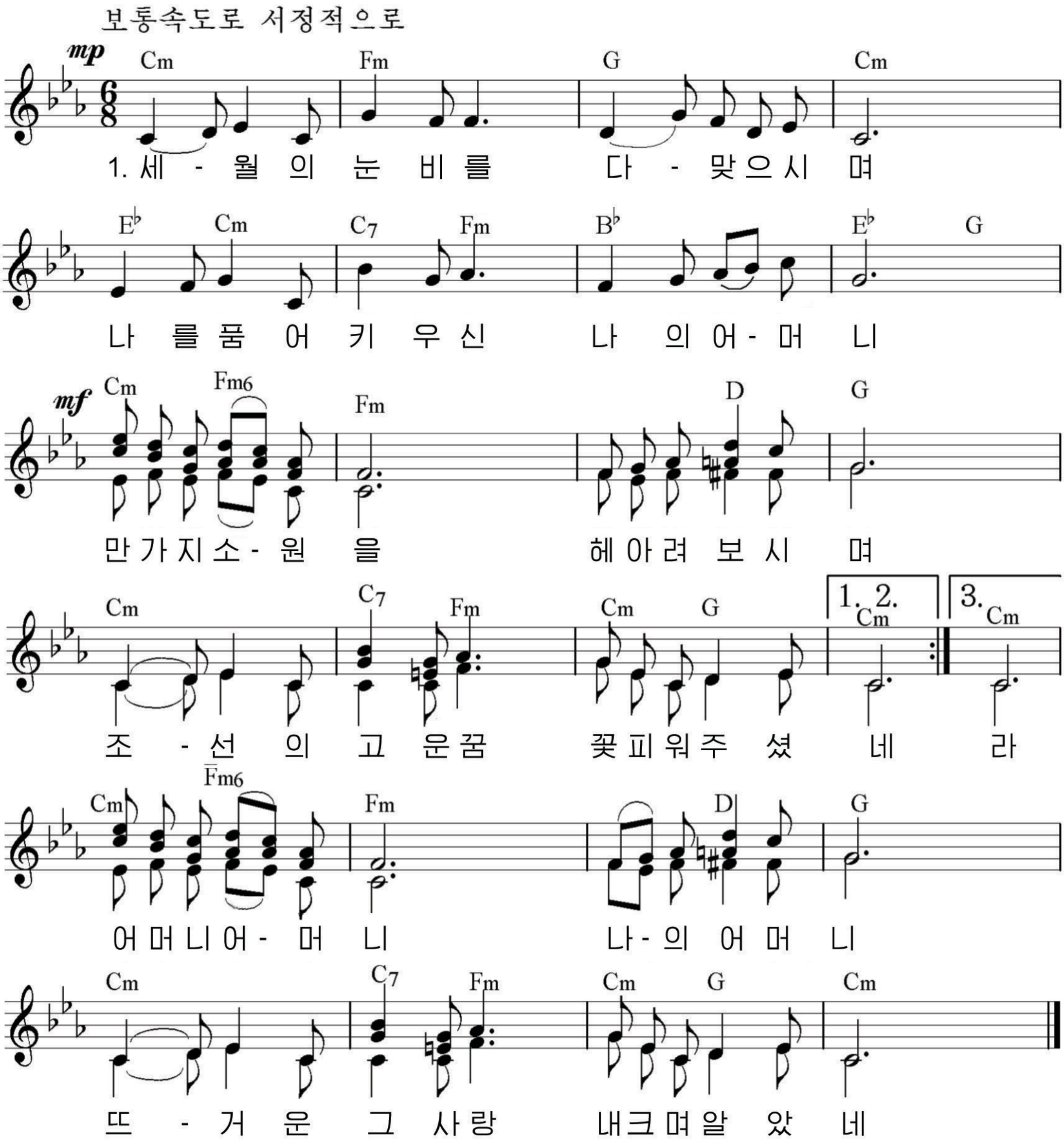
2성부만들기

《세상에 부럼없어라》 중에서

(후렴)



제12과. 불후의 고전적명작 《나의 어머니》



2. 비와도 눈와도 먼길 떠나도
손잡아 이끄신 나의 어머니
순간을 살아도 빛나게 살라고
길러준 그 품을 내 어이 잊으랴

3. 기쁘나 힘드나 부르고 싶은
정답고 미더운 나의 어머니
그 은혜 못 잊어 세월의 끝까지
수령님 받들어 한길을 가리라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뜨거운 그 사랑 내 크며 알았네

제13과. 교향곡《운명》감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음악공부에서는 음악감상을 많이 하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베토벤은 교향곡 제5번《운명》을 1804년부터 창작하기 시작하여 1808년에 끝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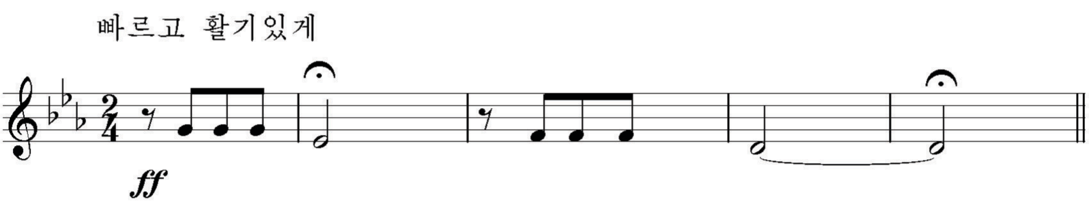
작품은 당대 불합리한 사회악에 불만을 품고 크게 항거해나가는 주인공자신의 생활과 운명을 반영하고있다. 작품에는 고민, 투쟁, 분노, 비애, 환희 등 인간이 가지고있는 감정이 관현악적울림으로 비교적 생동하게 담겨져있다.

제1악장

※ 빠르고 활기있게, 도－소조, $\frac{2}{4}$박자, 쏘나타형식

작품은 서주부가 없이 시작부터 기본주제가 울린다.

제1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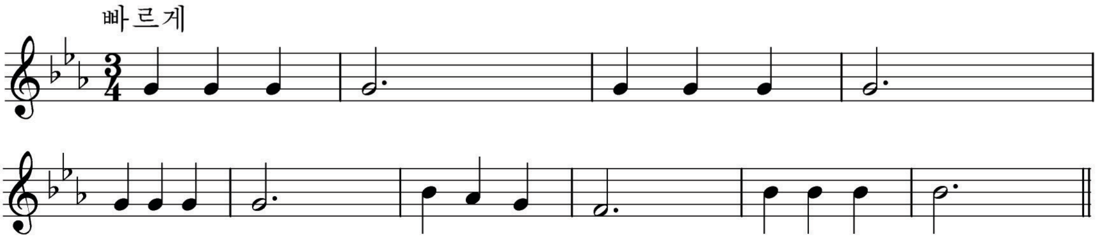


베토벤자신은 제1악장 1주제에 대하여《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하였다.

후에 이 교향곡을《운명》이라고 부르게 된것도 바로 여기서 온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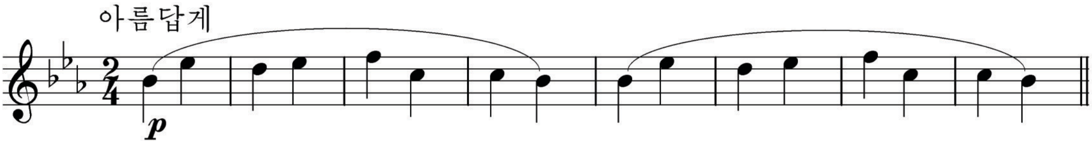
이 동기는 1악장에서만 나오고 없어지는것이 아니라 뒤에 다른 악장들에서도 형태를 바꾸어가면서 나오며 교향곡 전 악장을 통일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례: 제3악장의 부주제



이것은 3악장에서 1악장주제를 변형시킨 실례이다.
제2주제는 I바이올린으로 연주된다.

제2주제



1주제선률이 억세고 격동적인 성격이라면 2주제선률은 아름답고 부드러운 성격이다.

발전부는 제1주제를 기본으로 하여 극적으로 발전한다.

반복부(재현부)는 제시부구성과 거의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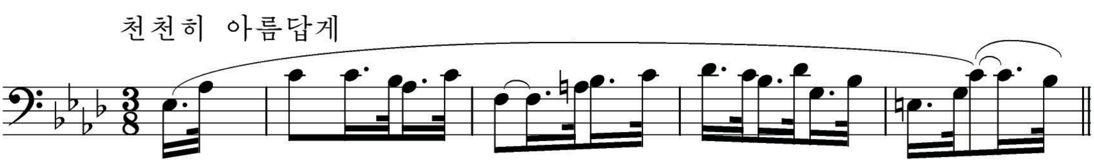
그러나 주의깊게 들으면 악기편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종결부는 발전부와 같이 《운명》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처리되면서 무게있게 끝난다.

제2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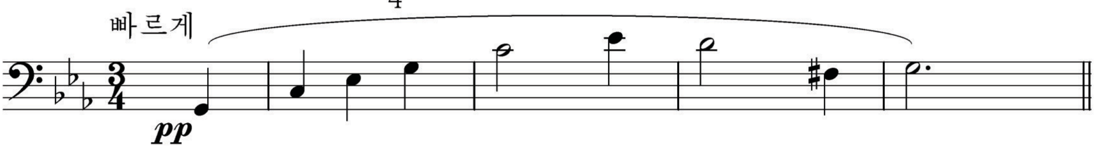
※ 천천히, 라♭—대조, $\frac{3}{8}$박자, 자유변주곡형식

2악장은 주제선률을 여러차례 변주시키면서 행복한 생활에 대한 갈망을 노래하고있다.



제3악장

※ 빠르게, 도—소조, $\frac{3}{4}$박자, 스케르쪼(롱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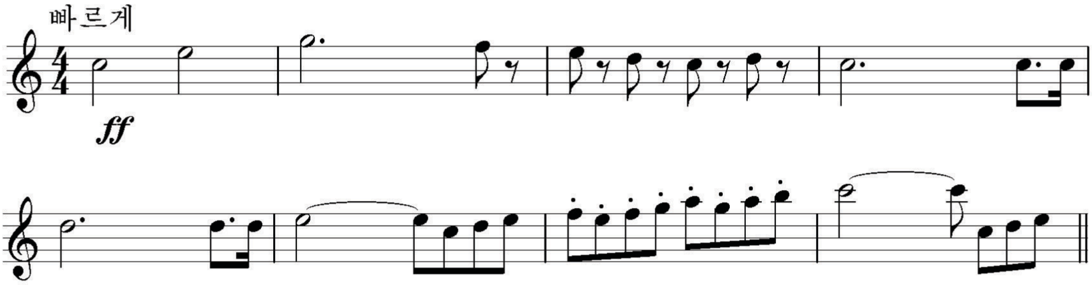


빠르게 진행되는 3악장은 특히 중간부에서 아주 경쾌하며 우습고 통쾌한 감정을 더해주고있다.

다시 처음부분을 재현하여 끝내면서 쉬지 않고 4악장으로 곧바로 련결된다.

제4악장

※ 빠르게, 도-대조, $\frac{4}{4}$박자, 쏘나타형식

지금까지 조금씩 나타나던 환희의 감정이 4악장시작부터 폭발하듯 터치면서 울분과 항거의 감정으로 앙양된다.



2주제는 밝고 아름다운 선률로 되여있다.

4악장은 환희와 고민의 감정이 엇바뀌다가 마지막에는 드디여 환희의 감정으로 시원하게 끝난다.

작품에는 유럽고전음악이 다 그러하듯이 작곡가자신이 계급투쟁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가 부족하고 보수적인 봉건귀족들의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일련의 시대적 및 사회계급적인 제한성이 있다.

베토벤(1770-1827)

도이췰란드의 본에서 태여난 그는 아버지의 엄격한 통제속에서 음악교육을 받았으며 하이든, 모짜르트 등 음악대가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가 되였다.

베토벤은 30살을 전후하여 귀를 전혀 듣지 못하게 되였다.

그는 불굴의 정신력을 가지고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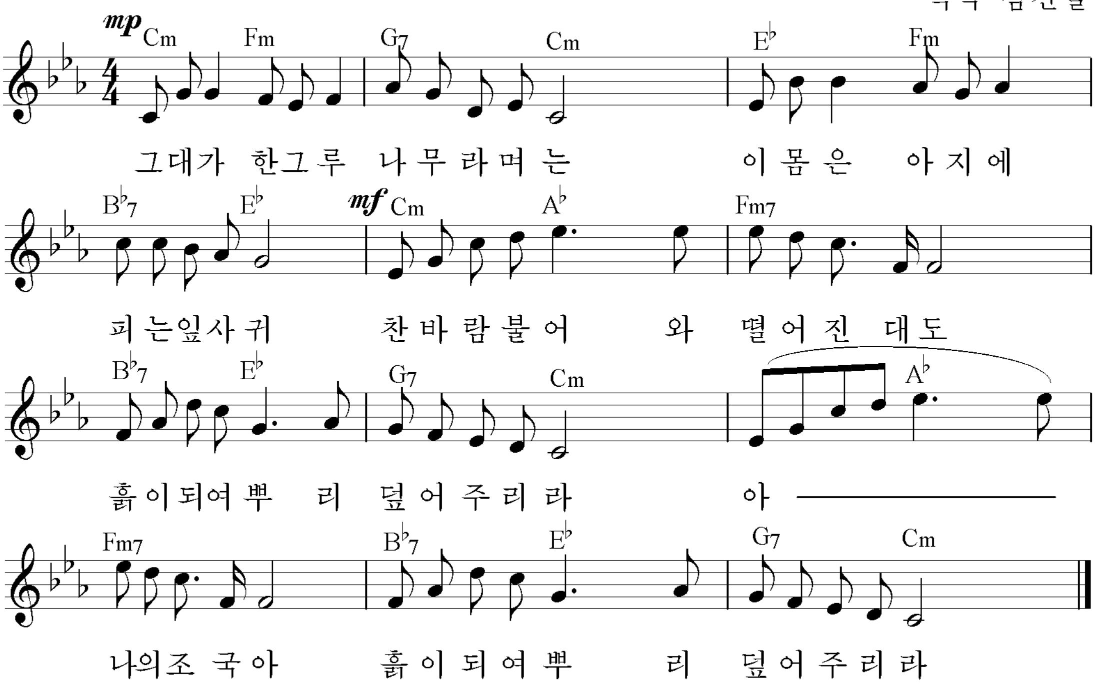
30년간의 창작활동과정에 9편의 교향곡을 비롯하여 수백편의 다양한 음악유산을 남기였다. 특히 그가 창작한 교향곡들인 3번《영웅》, 5번《운명》, 6번《전원》, 9번《합창교향곡》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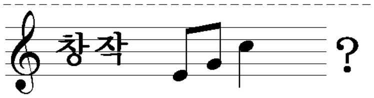
제14과.　도－소조시창(11, 12)

11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작사 전동우
작곡 김건일

느리게 서정적으로





단순2부분형식의 선률창작(2)

선률은 매개 음진행이 선률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전반적인 선률적곡선이 그어져야 한다.선률창작에서는 음의 상승진행과 하강진행, 폭넓은 선률진행과 류창한 선률진행을 옳게 결합시켜 선률적곡선이 원활하게 그어지게 하여야 하며 자연스러운 정서적흐름이 보장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선률형상의 론리에 맞게 선률적곡선의 절정 즉 고조점이 형성되게 함으로써 곡의 정서가 굴곡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안겨오게 하여야 하며 형상적의도가 뚜렷하게 돋구어지게 하여야 한다.

가 사　　다박솔초소에 흰눈 내려요

선군승리 축복의 꽃보란가요
다박솔초소에 흰눈 내려요
장군님 수놓으신 선군의 자욱
속삭이며 내려요 퐁퐁 내려요

별 보러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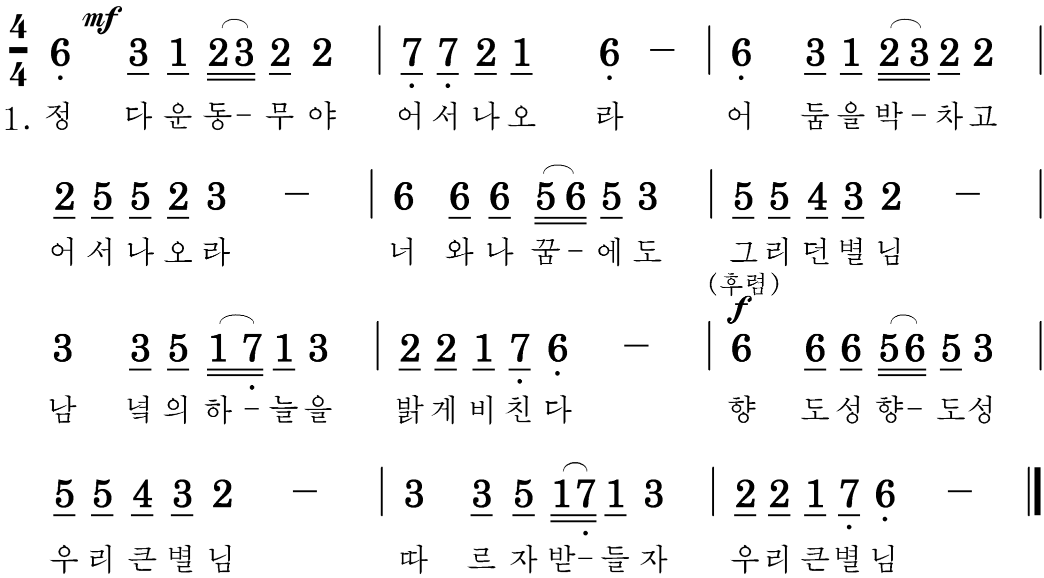
12

흠모의 정을 담아

1=미♭

작사 박미성

작곡 리종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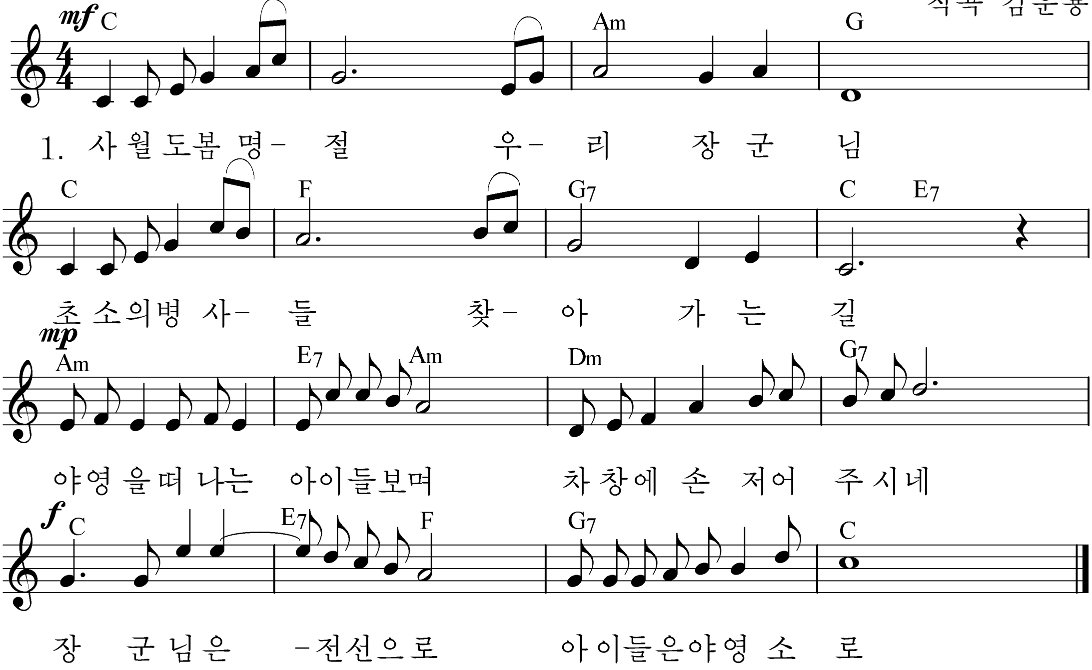


2성부만들기

장군님과 아이들

따뜻하고 밝게

작사 김정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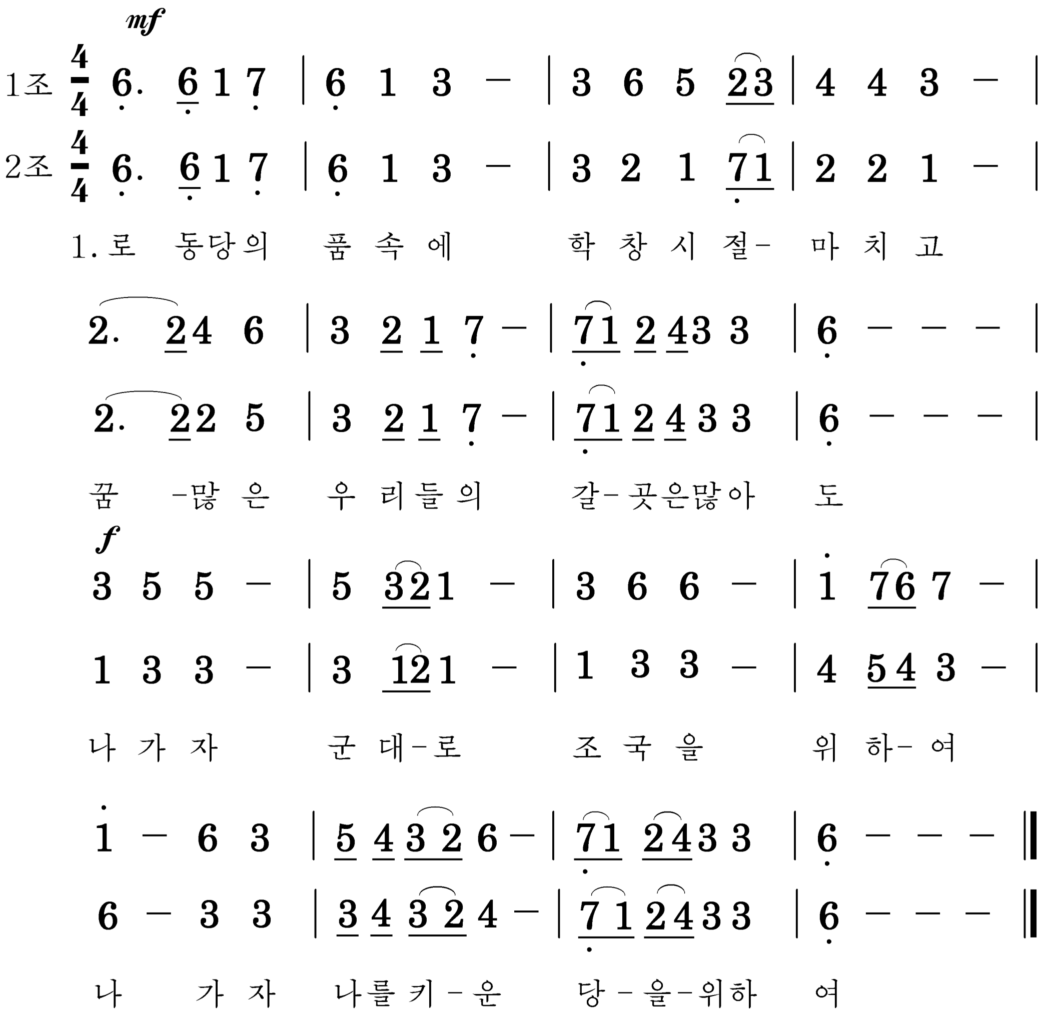
작곡 김운룡



제15과. 동무들아 군대로 가자

랑만적으로
1=미♭

작사, 작곡 류용남



2. 군복입은 그날에 첫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과 어머님께 보내드리리
대렬을 맞추며 노래를 부르자
나가자 나를 키운 당을 위하여

3. 후대들이 우리의 청춘시절 물으면
땀 배인 병사시절 군복을 보이리
나가자 군대로 조국을 위하여
통일의 광장까지 정보로 앞으로

제16과. 합창과 관현악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감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합창과 관현악곡은 우리 나라에서 탐구하고 발견한 새로운 형식의 성악종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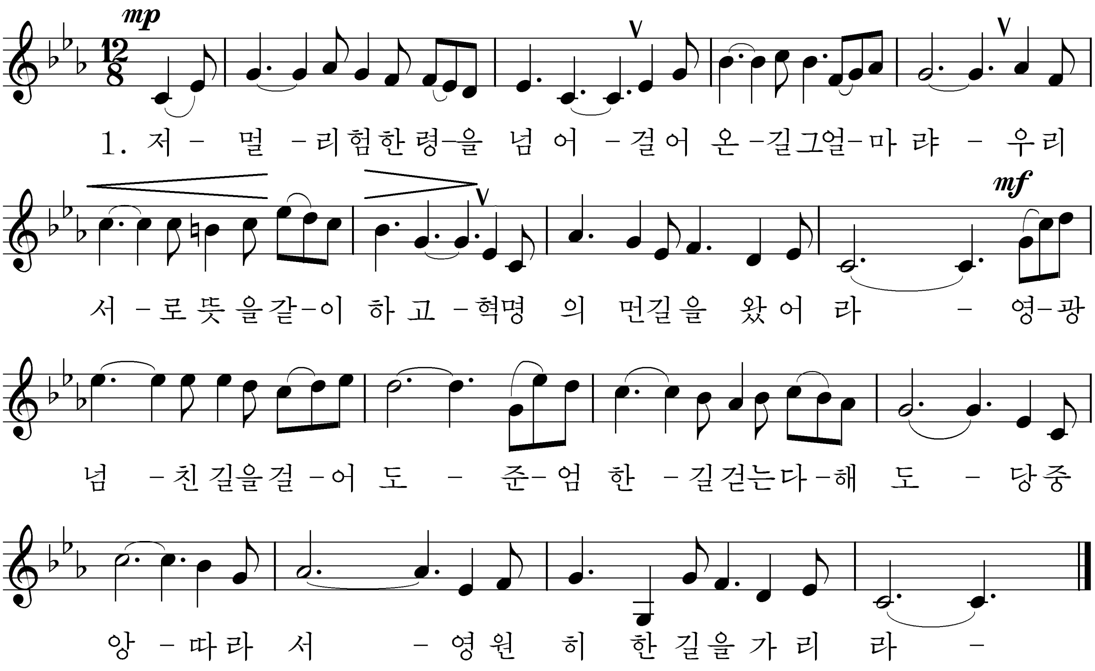
합창과 관현악곡은 합창과 관현악 두 부류가 다 하나의 안삼불체계내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있는 독특한 음악형식이다.

합창과 관현악의 새로운 형식은 절가선률의 반복을 통하여 사상정서적 내용의 심화와 발전을 뚜렷이 보여주는 인민적인 형식으로서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성악형식으로 되고있다. 합창과 관현악《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작사 리정술
작곡 리학범

빠르지 않고 숭엄하게



노래의 가사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멀다 해도 그 길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일편단심 변함없이 걸을 영원한 길임을 세련된 시적형상으로 뚜렷하게 표현하고있다.

$\frac{12}{8}$ 박자로 되여있는 숭엄하고 무게있는 선률은 가사가 담고있는 주제사상을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노래의 전반부는 무게있고 웅심깊게 흐르면서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멀리 걸어온 지난 혁명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되새기게 하며 후반부는 비교적 높은 음구에서 폭넓게 형상되면서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숭배심과 흠모심을 격조높이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노래의 이러한 정서적흐름을 여러 성악형식과 관현악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은근하면서도 웅심깊게 형상하고있다.

관현악 총제주로 무게있게 형상된 서주는 폭넓은 선률과 풍만한 관현악적 울림으로 당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들의 름름한 모습을 련상시킨다.

서주에 이어 남성합창으로 받는 1절의 음악형상은 당을 따라 걸어온 영광스러운 지난날을 감회깊이 되새겨보게 한다.

음악은 2절에 들어가기 전에 남성합창에 의한 허밍이 8소절 연주된다. 여기서 허밍은 지나온 영광의 나날들을 여운있게 되새겨보게 할뿐아니라 다음부분과의 련결을 자연스럽게 보장하고있다.

2절에 이르러 음악은 남성3중창으로 바뀌여지며 여기에 녀성합창이 허밍으로 선률을 안받침함으로써 우리 당이 안겨준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기어이 보답하려는 혁명전사들의 억센 의지를 웅심깊게 보여주고있다.

허 밍

허밍이란 입을 다물고 소리내는 창법을 말한다. 보통 합창에서 많이 쓰인다.

허밍은 입을 다물고 코안의 공명이 잘 될수 있도록 입안을 넓히고 소리를 낸다. 허밍은 흔히 노래의 반주부에 쓰이며 화음을 형성하고 강약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작품에 독특한 색채와 표현력을 부여한다. 그러나 작품에서 허밍을 람용하면 형상의 진실성과 효과성을 높일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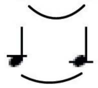
2절에 이어 3절은 전반부에서 녀성합창으로, 후반부에서 혼성합창으로 폭넓게 울리면서 당을 따르는 천만대오의 억센 기상을 훌륭히 형상하고있다.

음악은 다음부분에 이르러 강한 울림의 관현악과 혼성합창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의지가 강하게 풍기는 성음에 의하여 영원히 당을 따라 끝까지 가려는 혁명전사들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훌륭히 형상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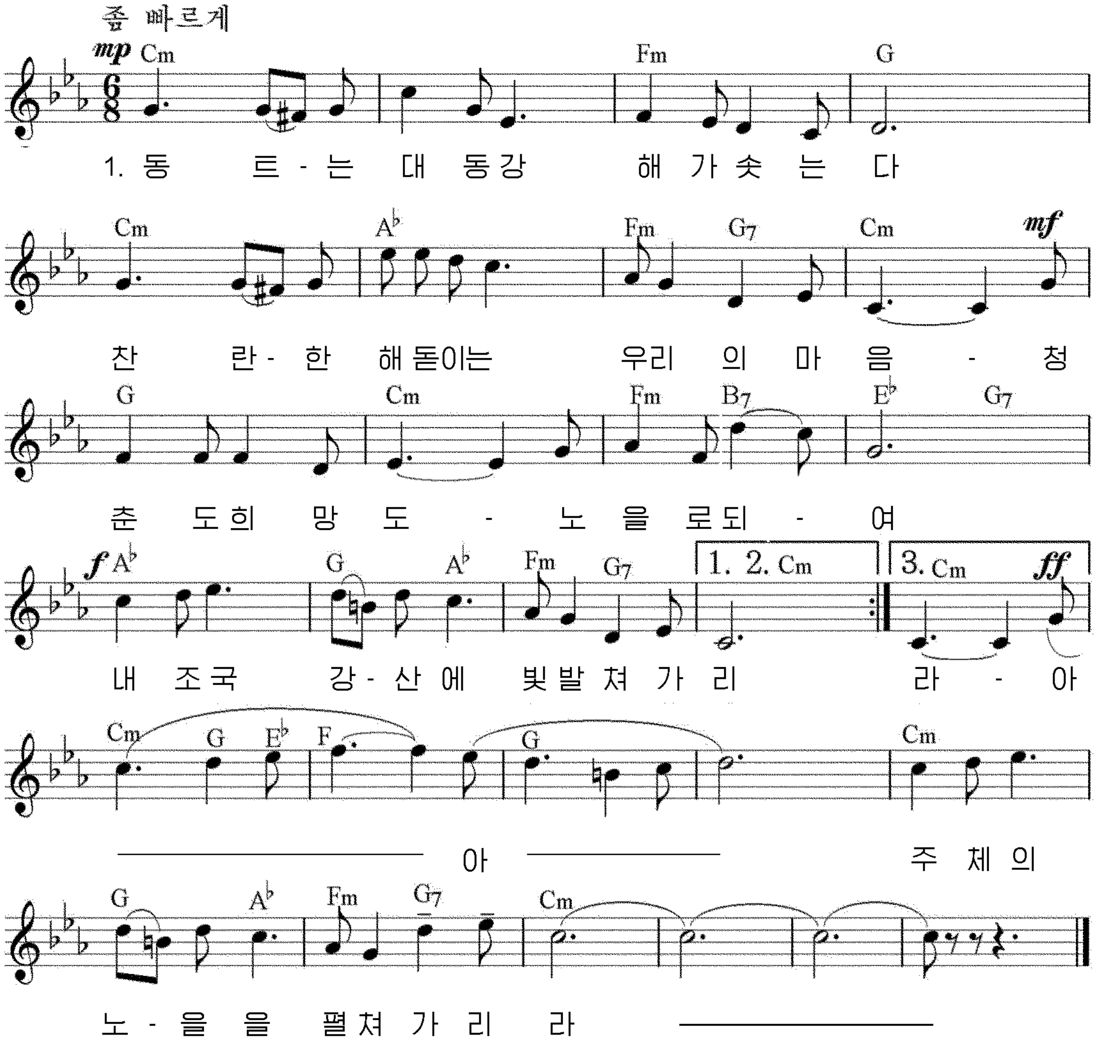
이처럼 작품은 형상수단들과 수법들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은근하고 웅심깊은 형상으로 사색의 세계에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폭이 있고 절절한 정서로 감정을 개방시켜주기도 하면서 굴곡있게 형상하고있다. 그리하여 노래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적내용에 누구나 커다란 공감을 가지게 할뿐아니라 오늘도 래일도 오직 당과 운명을 함께 하려는 우리 인민의 변함없는 마음을 더욱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이렇듯 합창과 관현악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절가형식의 노래를 가지고 거기에 담겨져있는 심오한 주제사상적내용을 폭넓고 품위있게 형상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리해할수 있게 음악형상의 통속성을 확고히 보장하고있다.

연주기호

Fine	(휘네)	끝
D.C.	(다 카포)	처음에로
D.S.	(달 쎄니오)	𝄋 기호에로
	(스타카토)	끊기
	(테누토)	누르기
	(타이)	붙임표
	(슬라)	이음표
rit	(리타르단도<략>)	점차 느리게
a tempo	(아템포)	본래속도로
	(훼르마타)	늘임표

불후의 고전적명작 《대동강의 해맞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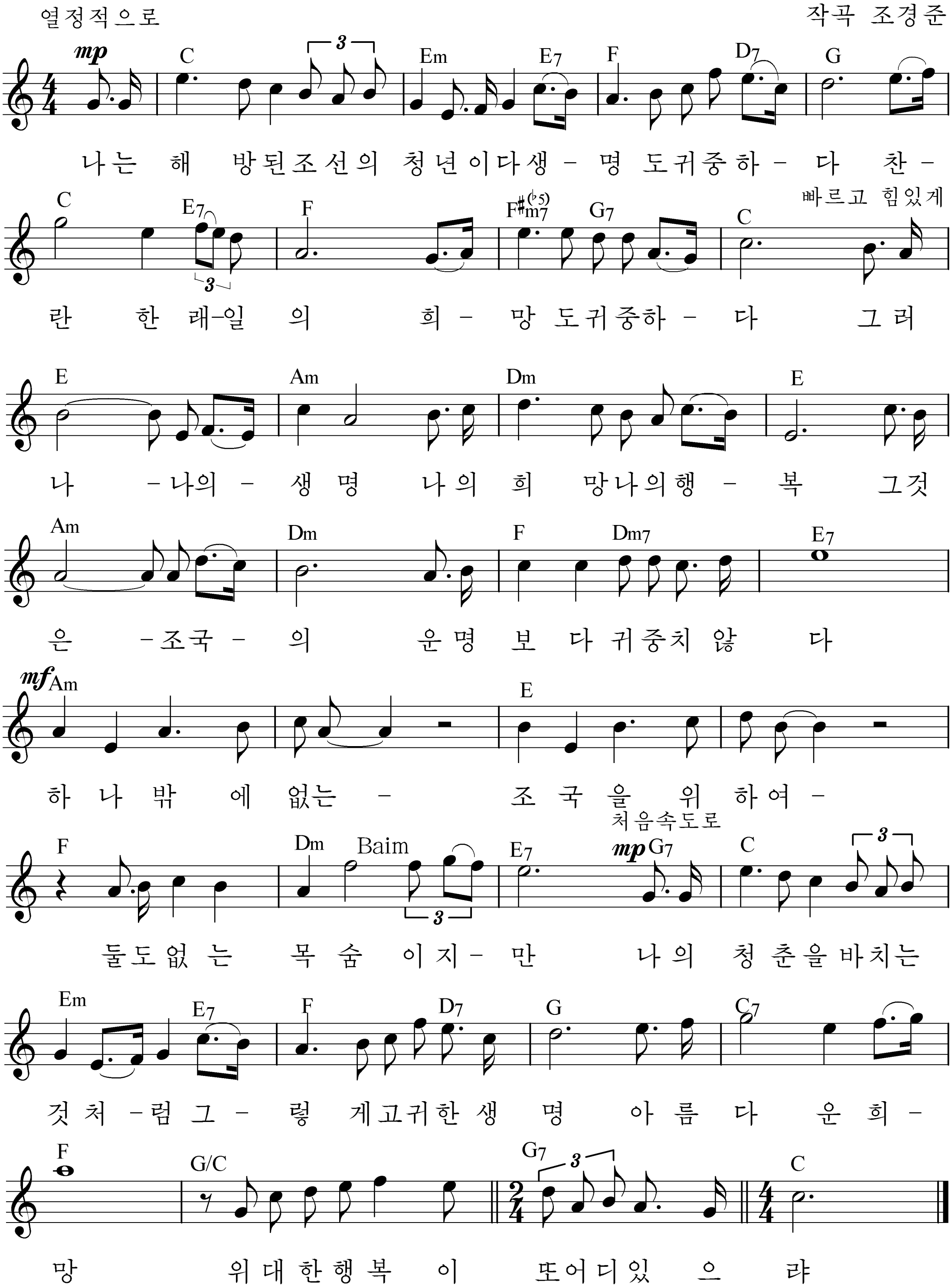


2. 락원의 대동강 해발 넘쳐라
   불타는 해돋이는 우리의 정열
   세월의 폭풍도 함께 헤치며
   수령님 받드는 전위가 되자

3. 오늘은 대동강 해돋이 맞고
   래일은 공산주의 해맞이하자
   혁명의 길 이어 세상 끝까지
   주체의 노을을 펼쳐가리라

   아 주체의 노을을 펼쳐가리라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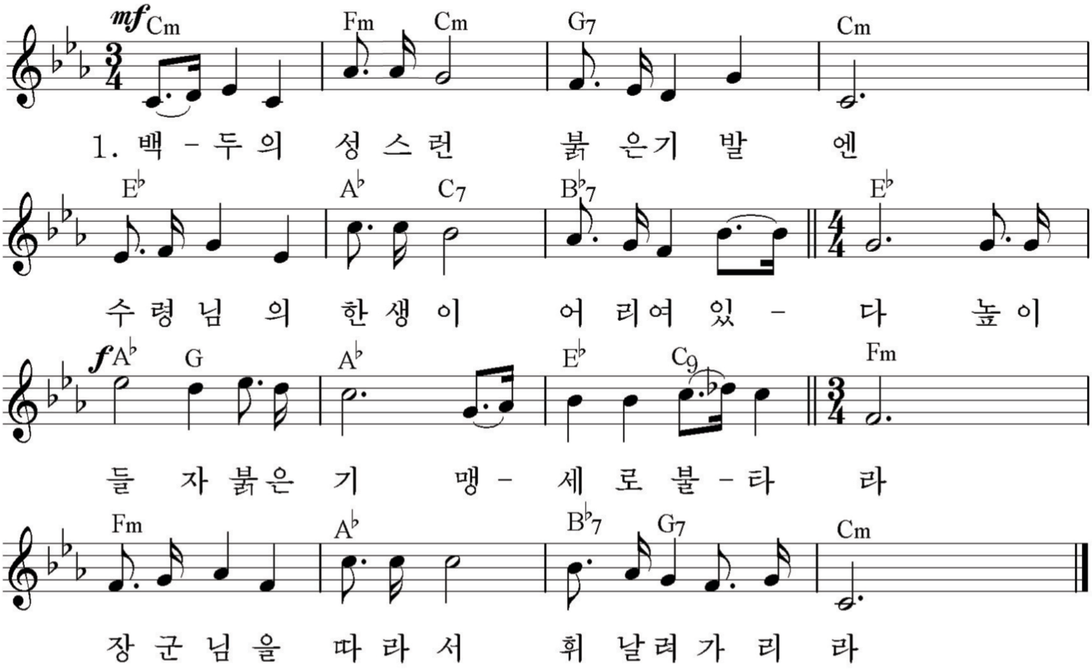
작사 리수복
작곡 조경준



높이 들자 붉은기

작사 송찬웅
작곡 송광림

무게있고 기백이 넘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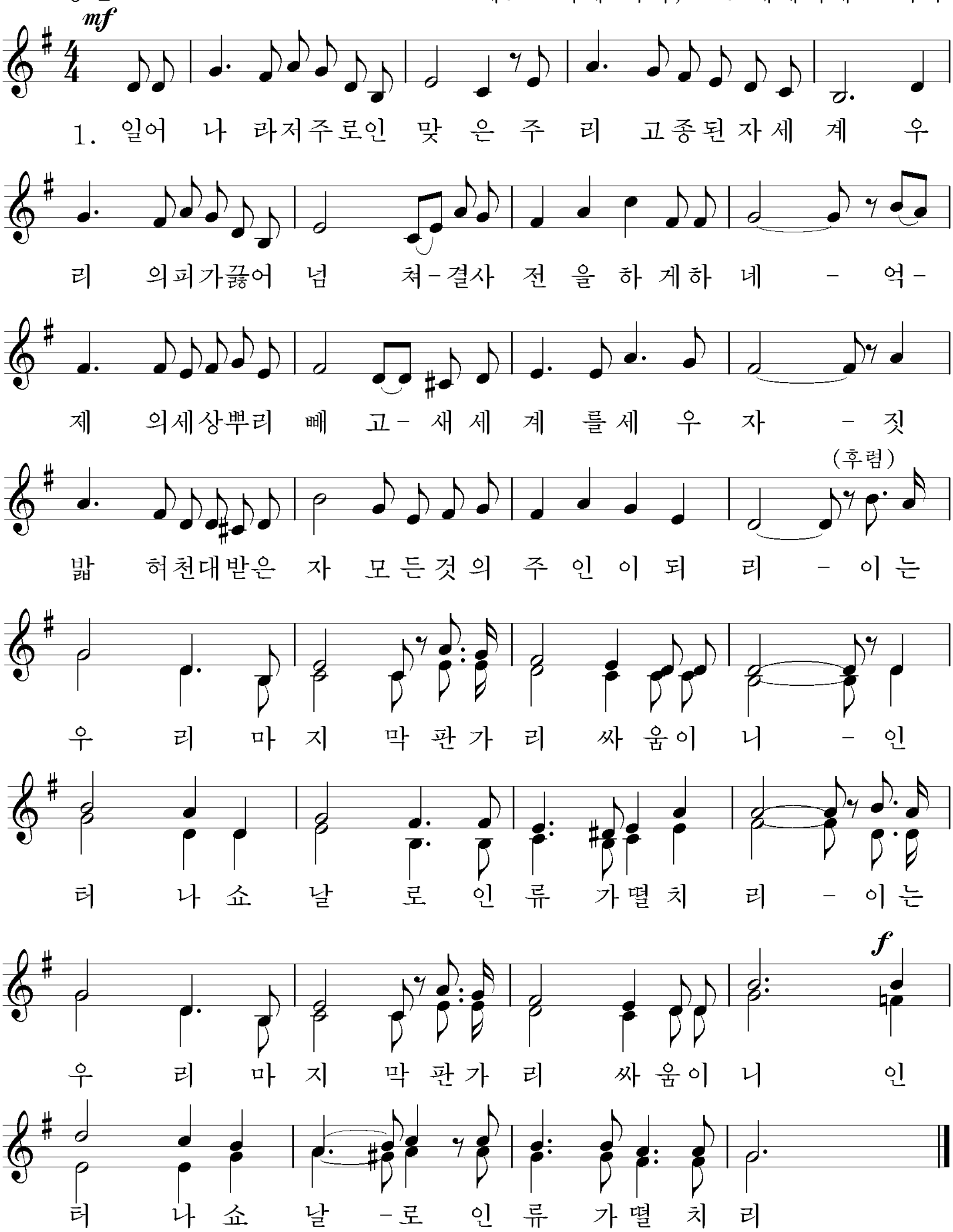


2. 력사의 준령을 헤쳐넘으며
승리만을 기폭에 새기여왔다
높이 들자 붉은기 신념의 이 기발
장군님을 따라서 휘날려가리라

3. 이 기발 들고서 당을 받들고
이 기발 지키며 내 조국 빛내리
높이 들자 붉은기 주체의 한길에
장군님을 따라서 휘날려가리라

인터나쇼날

행진조로　　　　에. 뽀띠에 작사, 쁘. 데게이뗴르 작곡



2. 하느님도 임금도 영웅도 우리를 구제 못하리
우리는 다만 제손으로 해방을 가져오리라
거세인 솜씨로 압박 부시고 제것을 찾자면
풀무를 불며용감히 두드려라 쇠가 단김에
(후렴)

3. 우리는 오직 전세계의 위대한 로력의 군대
땅덩어리는 우리의것이니 기생충에게는 없으리
개무리와 도살자에게는 큰 벼락 쏟아져도
우리의 머리우에 찬란한 태양이 비치리
(후렴)

음악 (중학교 제5학년용)
제2판

집 필 교수 박사 박동식,김군일,리명화
부교수 권명숙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리지향 악보편성 리지향
장 정 최경락 교 정 김옥화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1판발행 주체 96(2008)년10월 31일
2판인쇄 주체 101(2012)년 7월 25일 2판발행 주체 101(2012)년 8월 5일

교—12—보—784 값 5 원